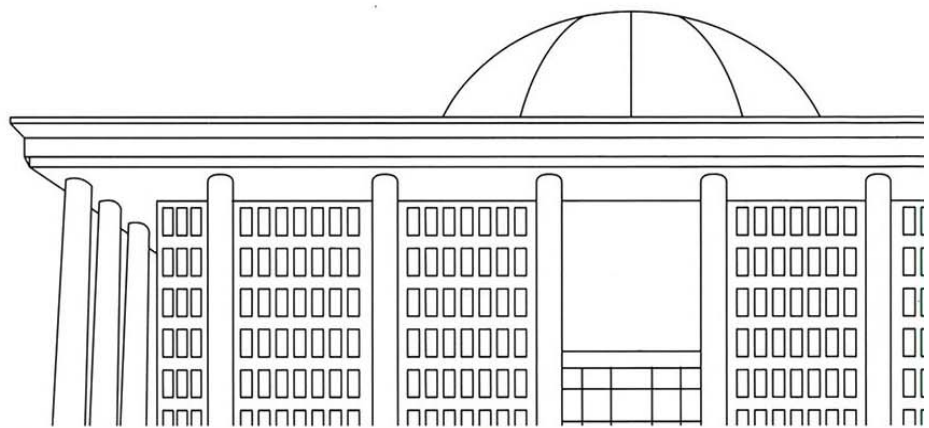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 - 공기업을 중심으로

2009. 3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

-공기업을 중심으로

발 간 사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자회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도록 하는 등 자회사 신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회사 신설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 측정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분 투자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공공기관별 지분투자자 인한 손실액의 규모,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기업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분투자 현황, 손실액의 규모, 담보제공 현황 및 추가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24개 공기업의 최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지분증권 관련 손실, 우발채무 및 추가손실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공기업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투자로 인하여 7,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지분 투자로 입은 손실 및 자회사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다양한 손실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등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발채무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분증권 관리방안이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지분증권 현황과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2009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1. 서론

- 공공기관의 자회사 신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동법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이 지분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
 -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에 따른 우발손실 존재,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된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투자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 왜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실 규모 측정과 향후 추가 손실 가능성 및 우발손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하여 경영상의 의사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분투자 등으로 인하여 입는 손실액은 간접적인 예산의 낭비요소라고 볼 수 있음
 - 공공기관별 지분투자 이후 발생한 손실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시급하며, 지분증권의 보유로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 및 우발손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타 공공기관에 비하여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지분투자로 인한 손실액의 규모를 측정함
 -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중 24 개 공기업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의 매도가능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임. 다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채권의 감액손실 규모가 커서 채무증권임에도 불구하고 본 평가보고서에 포함
 - 공기업별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먼저 최근 5년 동안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과 지분법손실이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경우 손실의 규모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최근 5개년 치의 경영 현황, 재무비율 분석 및 추세분석을 통하여 손실의 지속가능성 혹은 감액손실의 원인 등을 평가함

2. 공공기관의 지분증권 현황-공기업을 중심으로

- 공기업 투자자산 현황 및 증감 추이
 - 전체 공기업의 2007년 말 현재 총자산은 267조 2,348억원이며, 지분증권을 포함하는 투자자산은 2007년에 37조 2,944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6%임
 - 전체 공기업의 총자산이 2003년의 165조 6,626억원에서 2007년에는 267조 2,348억원으로 총 101조 5,7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61.13%임
 - 반면, 지분증권을 포함하는 투자자산은 2003년에는 31조 8,423억원이며, 2007년에도 37조 2,944억원으로 5조 4,521억원 증가하여 17.12% 증가하는 데 총자산증가율 61.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투자자산 중 매도가능증권은 2003년의 1,871억원에서 2007년에는 6,533억원으로 249.23% 증가하였으나, 총자산에서 미치는 영향이 적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2007년에는 29조 8,982억원으로 2003년의 24조 2,171억원에 비하여 5조 6,881억원 증가하여 23.45% 증가에 그침

□ 매도가능증권 현황

- 24개 공기업의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은 2003년의 1,871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6,533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249.23% 증가함
- 24개 공기업 중 장부가액이 2003년에 비하여 2007년에 크게 증가한 곳은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며, 한국가스공사의 매도가능증권 증가가 4,439억원으로 전체의 95.22%를 차지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

- 2007년 말 현재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29조 8,982억원으로 2003년의 24조 2,171억원에 비하여 5조 6,881억원 증가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증가한 공기업 중 지분법적용주식 장부가액 증가를 이끈 주된 곳은 한국전력공사이며, 2003년 대비 2007년에 5조 1,034억원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증가액인 5조 6,876억원의 89.72%에 해당함
- 그 밖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광물투자 등을 확대함에 따라 2003년에 비하여 2,403억원 증가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2005년에 공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1,846억원 증가함

3. 공공기관별 지분증권 손실 현황-공기업을 중심으로

가. 지분투자자로 인한 손실 총액

- 24개 공기업을 중 13개 공기업을 지분투자자와 후순위채권 인수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손실의 규모는 총 709,940백만원에 이릅니다
 - 공기업을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 미만 소유함으로써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분증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액손실은 최근 5년 동안 총 81,677백만원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을에서 발생
 - 공기업을 2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공기업을 인식하고 있는 지분법손실은 112,878백만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8개 공기업을에서 발생
 - 후순위채권 감액손실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475,576백만원 발생
 -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지급보증이 확정부채화된 금액이 39,809백만원에 이릅니다

공기업을별 지분증권 및 후순위채권 손실액 현황

(단위: 백만원)

	금 액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81,677
지분법손실	△112,878
후순위채권 감액손실	△475,576
지급보증의 확정부채금액	△39,809
합 계	△709,940

나. 공기업별 지분증권 손실액 현황

(1)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광물투자 관련 손실 발생

□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 2003년에 KORES Canada Corp.과 관련하여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1,224백만원 인식

□ 지분법손실

- 20%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 지분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으며,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인식한 지분법손실액은 3,379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한국광물자원공사 지분법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지분법손실액(2003~2007)
Philco Resources Limited, 서안Maxun신재료유한공사, KORES Canada Corp., 장가항안회성래용, 장가항공업재료, 암사, KMC(주), 광양합금철(주)	△3,379

(2) 대한주택공사: 후순위채권 131,100백만원 감액손실

□ 자산유동화 관련 후순위채권 감액손실

- 대한주택공사가 1999년과 2000년 2회에 걸쳐 자산유동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후순위채권 131,100백만원 전액 감액손실 처리함

(3) 대한주택보증(주): 출자전환채권 33,898백만원 감액손실

□ 출자전환채권의 추가 손실 발생

- 대한주택보증(주)이 출자전환채권으로 보유 중인 주식 중 추가적으로 감액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 이후 손익계산서에서 인식한 매도가 능증권감액손실 규모는 33,898백만원임

대한주택보증 출자전환채권 손실액 현황

(단위: 백만원)

손실발생 업체	금액
LIG건설(주), 충남방직(주), 국제종합토건(주), 일신석재, 울트라건설, 두산산업개발, 동양철관, 일성건설(주), 서한, 진도, 코스모화학, 통일중공업, (주)우방, (주)우방타워랜드, (주)한일합섬, (주)새롬성원	△33,898

(4)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에너지(주) 6,882백만원 지분법손실

□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영업손실 지속화로 지분법 손실 발생

- 인천공항에너지(주)에 18,014백만원 투자한 이후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2007년 말 장부가액은 4,220백만원, 2003년 이후 인식한 지분법손실액은 6,882백만원에 이름
- 인천공항에너지(주)는 높은 원가율과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결손이 지속화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결손금은 41,366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5)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주) 관련 69,809백만원 손실 인식

- 한국부동산신탁(주) 부도로 인한 투자액 전액 손실 및 지급보증의 확정채무화
 - 한국감정원이 30,000백만원 투자한 한국부동산신탁(주)의 부도로 투자액 전액 손실 발생 및 한국부동산신탁(주)의 차입금 관련한 지급보증으로 총 39,809백만원 매년 2회 균등분할상환 중임
 - 이는 자회사를 위한 지급보증 등이 우발채무가 상당히 위험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6) 한국도로공사: 드림라인(주) 32,139백만원 감액손실

- 드림라인(주) 투자로 인한 감액손실을 2006년에 인식
 -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한 드림라인(주)은 초고속인터넷사업부문의 지속적인 영업악화로 인하여 2003년에 9월 19일에 코스닥 등록이 취소되어 유가증권의 시장성을 잃었음
 - 시장성 상실 시점인 2003년이 아닌 2006년에야 비로소 유료도로관리권 상각누계액에서 321억원을 손실로 처리함

(7) 한국마사회: (주)YTN 6,958백만원 지분법손실

-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주)YTN에 투자하여 6,958백만원의 손실 발생
 - 한국마사회가 (주)YTN에 20,000백만원을 투자한 이후 2007년 말 장부가액은 14,470백만원으로 5,530백만원이 하락하였으며, 2003년부터 손익계산서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분법손실 누적액은 6,958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한국마사회법 제1조의 설립목적 및 제36조 사업의 범위에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을 (주)YTN에 투자하여 지분법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동 지분법손실은 한국마사회가 (주)YTN의 기업가치를 높게 보고 당시 순자산가액이 19억원에 불과한 (주)YTN의 주식을 200억원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영업권 181억원을 10년 동안 매년 18억원씩 상각하는 것과 (주)YTN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었지만 영업권상각액을 상회할 정도로 많지 않음에 따라 지분법손실이 지속화됨에 기인함
- 다만 2007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지분법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8) 한국석유공사: 사업목적 연관성 낮은 투자처에 대한 투자손실 10,503백만원 등

□ 사업목적 낮은 투자로 인하여 10,503백만원 손실 발생

- 한국석유공사는 총 8개 회사에 대하여 10,503백만원의 감액손실을 인식함
- 이 중 석유공사의 석유개발사업 관련 지분 투자는 PetrOnado S.A에 불과하며, 한국마이크로닉(주), (주)모벤스, 웹케시(주), 게이트뱅크(주), (주)코네드, (주)텔레프리, (주)드림텔레콤 등 주요 사업목적과 무관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크게 발생함

한국석유공사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단위: 백만원)

	취득가액	감액손실
PetrOnado S.A, 한국마이크로닉(주), (주)모벤스, 웹케시(주), 게이트뱅크(주), (주)코네드, (주)텔레프리, (주)드림텔레콤	29,316	△10,503

□ 인니NEM 등에 지분법 손실이 2,586백만원 발생

- 한국석유공사는 총 3개 회사에 투자 이후 지분법손실 1,071백만원 인식함
- 인니NEM1 등 석유개발사업 관련 지분투자에 대하여 2006회계연도부터 투자자산에서 무형자산 등으로 계정대체하였으며 이후 회사별 손익은 매출액 등에 반영됨

(9)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주) 5,560백만원

□ 경인운하(주)의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인하여 지분법 손실 발생

-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경인운하(주)의 취득원가는 12,778백만원이나,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7,218백만원에 불과하여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5,560백만원임
- 경인운하사업이 예상과 달리 추진되지 않음에 기인함

(10) 한국조폐공사: (주)몬텍스코리아 200백만원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 전자화폐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고자 (주)몬텍스코리아에 2억원을 투자하였지만 회수가능가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3년에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함

(11) 한국지역난방공사: 14,627백만원 지분법손실

□ 20% 이상 지분 출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지분법손실 발생

- 안산도시개발(주), 동화열전(유), 한국CES(주)의 경우 결손금 등의 누적으로 2004년 이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투자주식이 영("0")이하가 되어 이미 지분법 적용을 중지함. 다만 안산도시개발(주)의 경우 사업 성숙화로 최근에는 당기순이익 실현하고 있음.

- 인천종합에너지(주)도 사업을 위한 건설공사 진행 등에 따라 누적적으로 손실 발생하고 있어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하회함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법손실액

(단위: 백만원)

	투자액	장부가액	P/L 상 지분법손실
안산도시개발(주), 동화열전(유), 인천 종합에너지(주), 한국지역난방기술(주), 한국CES(주), 수원에너지(주)	55,720	41,093	△14,627

(12) 한국철도공사: 민자역사 15,046백만원 지분법손실, 기타 자회사
지분법손실 27,840백만원

- 17개 민자역사 중 9개 민자역사의 장부가액이 취득원가 하회(14,402백만원 손실)
 - 2007년 말 현재 취득가액 14,402백만원이나 장부가액이 영("0")인 민자역사는 창동역사(주), 신촌역사, 동인천쇼핑센터(주), (주)비트플렉스, (주)산본역쇼핑센터, (주)현대아이파크몰, 노량진역사(주) 등으로 영업부진한 역사와 건설 중으로 매출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역사로 구분됨
 - 부평역사(주)와 평택역사(주)도 각각 장부가액이 취득원가 하회하여 644백만원 손실
- 기타 자회사에서 장부가액이 취득원가 하회하는 가액 27,840백만원
 -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브이캐시(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등은 장부가액이 취득원가에 미치지 못함

(13) 한국토지공사 : 자산유동화관련 후순위채권손실 344,276백만원과
기타 투자로 인한 손실 3,713백만원

-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감액손실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에 부(-)의 효과를 발생시킨 규모는 총 347,989백만원임
 - 한국토지공사가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자산유동화하면서 인수한 후순위채권액의 회수가능가액이 전혀 없어 감액손실한 규모가 2002년~2007년 동안 344,276백만원임
 - 기타 새롬성원과 스마트시티(주), 그린시티(주)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액이 2002년~2007년 동안 3,71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스마트시티(주)와 그린시티(주)는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손실을 본 경우이며, 새롬성원은 보유 채권이 출자전환된 것으로 추가적인 감액손실 2,513백만원이 발생한 것임

4. 공공기관의 지분증권 관련 이슈사항

가. 추가손실 발생가능 지분증권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PF투자 125,573백만원

- 부동산 PF 관련 투자에 125,573백만원 투자하고 있음
 - 대한주택공사가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 광명역세권개발, 충주기업도시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2007년 말 현재 29,474백만원이며, (주)파주하우징에 3,671백만원을 출자하는 등 총 9,527백만원을 비축용 임대사업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고 있음

- 한국토지공사가 용인죽전지구, 용인동백지구, 대전엑스포지구 등 택지 개발지구의 PF사업에 지분 참여한 가액은 2007년 말 현재 81,199백만원이며, 비축용임대사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시행하는 남양주 별내 국민 임대주택단지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까지 5,373백만원을 투자

- 최근 부동산 개발의 침체 등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향후 회수가능가액이 투자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2) 한국관광공사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투자

- 한국관광공사가 290억원을 투자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순자산가액의 하락으로 향후 감액손실 발생 가능함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손익(2002~2007)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매출액	3,518	3,005	2,149	2,315	972	-
매출원가	7,650	7,860	7,465	7,226	-	-
판매비와관리비	1,151	1,031	1,069	1,313	7,833	1,520
영업이익	△5,284	△5,886	△6,385	△6,223	△6,861	△1,520
당기순이익	△4,856	△2,879	△6,528	△6,701	△7,116	△585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신항만(주) 투자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투자하고 있는 부산신항만(주) 손익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부산신항만(주)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부산신항만(주)에 2007년 말 현재 44,488백만 원을 투자함

- 부산신항만(주)은 2006년에 비로소 매출 발생하며 영업손실이 지속화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2003년에는 24.71%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138.77%로 크게 증가함
- 따라서 투자액 44,488백만원이나 향후 감액손실 발생가능함

나. 공기업의 자회사 관련 우발채무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어음담보

- 2007년 말 현재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백지어음 4매를 견질(담보)로 제공

□ 한국감정원의 지급보증의 확정부채화

-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지급보증이 확정부채화되어 39,809백만원을 20년 동안 14억원씩 분할상환

□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주식 담보

-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칠곡엔바이로(주)의 584,472주가 특수관계자인 칠곡엔바이로(주)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급보증

- 결손 누적된 동화열전(유)을 위하여 현지차입금에 대하여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심양지점에 2000년 10월 7일 US\$8,454,000(2007년도 기말환율 932.00원 기준 11,031백만원)을 지급보증

다. 자회사 매출이 특수관계자 매출로 구성

□ 한국도로공사의 DB정보통신

- 200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과 2006년 중 특수관계자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매출액은 56,502백만원(총매출의 55.7%), 48,681백만원(총매출의 63.6%)이 발생

□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관리공단

- 주택관리공단의 매출 중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를 넘어서고 있는 등 최근까지 매출액의 대부분을 대한주택공사에 의존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의 확보가 미흡한 상황

□ 당초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된 자회사의 경우 지속적인 모회사의 수주지원 등은 자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함

□ 자회사의 조직관리를 위한 비용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제를 통한 자회사 흡수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자회사 관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공공기관의 지분증권 보유로 인한 손익에 대한 접근이 매우 취약하였음

- 본 평가보고서는 24개 공기업별로 지분증권에 투자한 이 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손실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향후 우발손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다만 후순위채권은 금액적 효과가 커서 손실 규모에 포함
- 24개 공기업의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은 2003년의 1,87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6,533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249.23% 증가
 - 한국가스공사의 외국 LNG 매입처 투자 2,287억원에 기인하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개발 관련 지분 투자 899억원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
- 2007년 말 현재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주식의 장부가액은 29조 8,982억원으로 2003년의 24조 2,170억원에 비하여 5조 6,811억원 증가
 - 한국전력공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2003년 대비 2007년에 5조 1,034억원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증가액인 5조 6,811억원의 89.83%에 해당
- 공기업이 지분증권과 후순위채권 인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규모는 2003년~2007년 동안 709,940백만원에 이름
 - 매도가능증권에서 81,677백만원의 감액손실 발생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112,878백만원의 지분법손실이 발생
 - 후순위채권에서 475,576백만원의 감액손실 발생
 - 기타 지급보증의 확정부채화로 인하여 39,809백만원 손실 발생

□ 자회사를 위한 담보제공

- 우발채무가 확정부채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기업은 향후 자회사를 위한 담보제공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자회사 매출이 특수관계자 매출로 구성

- 당초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된 자회사의 경우 지속적인 특수관계자의 주지원 등은 자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함

□ 자회사의 조직관리를 위한 비용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제를 통한 자회사 흡수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자회사 관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평가 결과 요약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 가 결 과
사 업 성 과 계 획 의 타 당 성	성 과 계 획 의 타 당 성	사업이 부처의 임무, 목표와 일관되게 설계되었는가? ↳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지분 투자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
사 업 집 행	사업 집행의 효율성	사업집행 과정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는가? ↳ 공공기관이 지분증권에 투자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손실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에 따라 손실액 규모 및 우발손실에 대한 위험이 관리되지 못함
		사업의 자료가 충실히 수집·축적·공개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의 지분투자와 관련한 총괄적인 자료가 집계되지 못하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손실 규모를 연도별로 주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지분투자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국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무정보 제공이 낮은 수준임
		집행과정에서의 행정여건 및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지분투자로 인한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시기를 놓치는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사 업 성 과	성과 목표 달성도	사업의 성과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였는가? ↳ 정부의 자회사 신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 지분증권의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음. 다만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자회사 관리 항목을 통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있으나, 손실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는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투입 자원 대비 사업성과가 효율적인가? ↳ 공공기관의 지분증권 투자의 측면에서 볼 때, 취득원가 전액을 모두 감액손실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분증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차 례

요 약 / 5

I. 서론 / 1

- 1. 평가의 필요성 1
- 2. 평가 범위 및 평가 방법 2

II. 공공기관의 지분증권 현황-공기업을 중심으로 / 5

- 1. 공기업 총자산 현황 5
- 2.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 현황 6

III. 공공기관별 지분증권 손실 현황-공기업을 중심으로 / 13

- 1. 지분투자로 인한 손실 총액 13
- 2. 공기업별 지분투자 손실액 현황 16

IV. 공공기관의 지분증권 관련 이슈사항 / 40

- 1. 추가손실 발생 가능 지분증권 40
- 2. 공기업의 자회사 관련 우발채무 47
- 3. 자회사 매출이 특수관계자 매출로 구성 51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5

부록. 공기업별 지분증권 보유현황 / 59

참고문헌 / 90

표 차례

[표 1] 평가 대상 지분증권 보유 공기업	3
[표 2] 공기업 자산 현황(2003~2007)	6
[표 3] 공기업별 매도가능증권 보유 현황	9
[표 4] 공기업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	12
[표 5] 공기업 지분투자 및 후순위채권 관련 손실 규모	13
[표 6] 공기업 매도감액손실 규모(2003~2007)	14
[표 7] 공기업 지분법손실 규모(2003~2007)	15
[표 8] 공기업 후순위채권 감액손실 규모	15
[표 9] 한국부동산신탁(주) 관련 지급보증 손실내역	16
[표 10] 한국광물자원공사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현황	16
[표 11] 한국광물자원공사 지분법손실	17
[표 12] 대한주택공사 후순위채권감액손실	18
[표 13] 대한주택보증(주)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19
[표 14] 대한주택보증(주) 매도가능증권 관련 손익	20
[표 15] 인천공항에너지(주) 장부가액 현황	21
[표 16] 인천공항에너지(주) 손익현황 및 수익성 지표	22
[표 17] 인천공항에너지(주) 재무구조 및 재무건전성 지표	23
[표 18]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 관련 약정내용	24
[표 19] 한국도로공사 드림라인(주) 투자현황	25
[표 20] 한국마사회 지분법적용투자주식(2003~2007)	27
[표 21] (주)YTN 당기순이익(2003~2007)	27
[표 22] 한국석유공사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28
[표 23] 한국석유공사 지분법손실	29
[표 24] 한국수자원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9
[표 25] 경인운하(주) 손익 현황	30
[표 26] 한국조폐공사 매도가능증권	31
[표 27] (주)몬텍스코리아 경영현황(2001~2003)	32
[표 28]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법손실액	33
[표 29]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법적용투자회사 당기순이익(2004~2007)	33
[표 30] 한국철도공사 민자역사 주식 현황	35

[표 31] 한국철도공사 기타 자회사 주식 현황	36
[표 32] 한국철도공사 피투자회사 당기순이익	37
[표 33] 한국토지공사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39
[표 34] 부동산 PF 투자 현황(2003~2007)	40
[표 35] 대한주택공사 부동산 PF 투자액 현황(2003~2007)	41
[표 36] 한국토지공사 부동산 PF 투자액 현황(2003~2007)	42
[표 37] 한국관광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43
[표 38]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순자산가액 현황	43
[표 39]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손익(2002~2007)	44
[표 4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매도가능증권	45
[표 41] 부산신항만(주) 손익(2003~2007)	45
[표 42] 부산신항만(주) 재무구조 및 재무건전성	46
[표 43] 공기업 우발채무 현황	47
[표 44] 한국수자원공사 칠곡엔바이로(주) 투자 현황	48
[표 45] 칠곡엔바이로(주) 현금흐름표 요약	50
[표 46] 칠곡엔바이로(주)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	50
[표 47] 동화열전(유) 당기순이익	51
[표 48] 주택관리공단 주요 재무현황(2003~2007)	52
[표 49] 주택관리공단 매출(2004~2007)	53
[표 50]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특수관계자간 거래	54
[표 51] 한국건설관리공사 손익 현황	54

그림 차례

[그림 1] 공기업별 매도가능증권 보유현황 (2003-2007)	10
[그림 2] 공기업별 매도가능증권 보유 현황 (2007)	10
[그림 3] 2003-2007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 현황	12

I. 서론

1. 평가의 필요성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7.4.1)됨에 따라 동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통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자회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회사 신설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도록 하는 등 자회사 신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동법 시행 이전에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두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지나친 자회사 설립을 통한 방만한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즉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보증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자회사 신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동법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이 지분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에 따른 우발손실 존재,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된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지분투자로 인한 손실액에 대한 회계처리 왜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 평가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 대부분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하여 경영상의 의사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이 지분투자 등으로 인하여 입는 손실액은 간접적인 예산의 낭비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분증권 취득은 공공기관이 유일하게 부대사업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투자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별로 어떠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이후 수익성 혹은 손실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 측정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공기업별로 지분투자 이후 발생한 손실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지분증권의 향후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 및 우발손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평가보고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첫째, 공공기관 중 24개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의 현황을 공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한다. 둘째, 공기업의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을 각각의 위원회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셋째, 지분증권 투자로 인하여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손실액 규모를 분석하고 손실 발생업체에 대한 재무비율 분석과 추이 분석을 통하여 추가적인 손실가능성을 예측한다. 넷째, 지분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우발손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섯째, 민영화 등을 전제로 분리된 자회사 등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현황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지분투자로 입은 손실액 규모, 우발손실 가능성, 담보제공,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 등을 정리하고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평가 범위 및 평가 방법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24개 공기업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공사, 산재의료원을 제외한 21개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이다.

[표 1] 평가 대상 지분증권 보유 공기업

소관	평가대상 공기업
국토해양위원회(12)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토지공사,
지식경제위원회(6)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	한국관광공사
기획재정위원회(1)	한국조폐공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1)	한국마사회

주: 산재의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

본 평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매도가능증권 중 주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국·공채 등 채무증권과 출자금은 본 평가보고서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중 채무증권은 대부분 국·공채 등으로 구성되어 손실의 가능성이 주식에 비하여 낮고,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본 평가보고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채권의 감액손실 규모가 커서 채무증권임에도 불구하고 본 평가보고서에 포함시켰다. 또한 수익증권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매매하는 단기매매증권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협회 등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여 출자금으로 계상하는 부분도 금액적 중요성이 낮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본 평가보고서에서 적용한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공기업별로 2007년 말 현재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둘째, 공기업별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최근 5년 동안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과 지분법손실이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경우 손실의 규모를 정리하였다. 셋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최근 5개년치의 경영 현황, 재무비율 분석 및

추세분석을 통하여 손실의 지속가능성 혹은 감액손실의 원인 등을 평가하였다.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은 재무제표 상에 표기된 한 항목의 수치를 다른 항목의 수치로 나눈 것으로서,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성과를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이다. 재무제표상의 여러 항목 중에서 두 항목을 비교하여 비율들을 구하기 때문에 재무비율은 수없이 많을 수 있으나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 재무건전성비율,¹⁾ 수익성비율²⁾을 이용하였다.

본 평가보고서는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의 손실규모와 향후 추가 손실가능성에 대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공공기관별 지분증권 투자가 목적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이번 평가보고서에서는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 1) 재무건전성비율은 기업의 재무유동성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대비이자비용비율 등을 이용하였다.
 - 2) 수익성비율은 기업의 모든 활동이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측정하며, 본 보고서에서 이용하는 주요 수익성비율은 자기자본수익률(ROE), 영업이익률이다.

II. 공공기관의 지분증권³⁾ 현황-공기업을 중심으로

1. 공기업 총자산 현황

본 장에서는 24개 공기업의 총자산의 규모와 총자산 중에서 본 평가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을 포함하는 투자자산의 규모와 최근 5년(2003~2007년) 동안 증감 추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7년 말 현재 공기업의 자산총액(부채 + 자본)은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의 165조 6,626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한 결과 267조 2,348억원에 이르는 등 총 101조 5,722억원(61.31%)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61.13%이다. 주된 증가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이 36조 1,520억원, 유형자산이 39조 6,550억원이 전체 자산 증가의 74.6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분증권을 포함하는 투자자산은 2003년에는 31조 8,423억원이며, 2007년에도 37조 2,944억원으로 5조 4,521억원 증가하여 17.12% 증가하는 데 총 자산증가율 61.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을 포함하는 투자자산은 2003년 이후 큰 증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자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그 동안 공기업의 자회사 신설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하여 증가가 더딘 경향도 있지만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손실로 인하여 지분증권의 장부가액이 취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증가율을 높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다.

3)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한정함

[표 2] 공기업 자산 현황(2003~2007)

(단위: 억원, %)

금액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감율
당좌자산	169,313	174,987	225,907	220,186	262,238	54.88
재고자산	161,565	232,986	260,624	410,136	523,085	223.76
투자자산	318,423	337,476	361,553	364,200	372,944	17.12
유형자산	661,103	709,621	925,481	1,005,872	1,057,653	59.98
무형자산	321,815	339,156	352,746	371,360	409,928	27.38
기타자산	24,407	24,589	22,668	33,324	46,500	90.52
자산총계	1,656,626	1,818,814	2,148,980	2,405,080	2,672,348	61.31
당좌자산	10.22	9.62	10.51	9.16	9.81	
재고자산	9.75	12.81	12.13	17.05	19.57	
투자자산	19.22	18.55	16.82	15.14	13.96	
유형자산	39.91	39.02	43.07	41.82	39.58	
무형자산	19.43	18.65	16.41	15.44	15.34	
기타자산	1.47	1.35	1.05	1.39	1.74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24공기업 감사보고서.

2.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 현황

다음으로 공기업의 총자산과 본 평가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매도가능증권⁴⁾(지분증권만 해당)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⁵⁾을 포함하는 투자자산의 변동에 대해

- 4) 매도가능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을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 주식매수선택권과 파생상품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서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영향력이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분율 기준에 의한 방법과 실질적 영향력 기준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매도가능증권 보유 현황

산재의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지 않아 총 2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도가능증권 현황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일부 공기업의 매도가능증권 취득원가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2003년 이후 증감을 분석하였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감액손실과 평가손익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24개 공기업의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은 2003년의 1,871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6,533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249.23% 증가하였다.

24개 공기업 중 장부가액이 2003년에 비하여 2007년에 크게 증가한 곳은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다.

대한주택공사의 매도가능증권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Paper company에 대한 투자액이 확대됨에 따라 2003년과 비교하여 2007년에 38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의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이 2003년에 비하여 2,287억원 증가함에 따라 전체 증가액 4,662억원의 49.0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한국가스공사가 오만, 예멘 등 외국의 LNG 매입처에 대한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주로 투자회사와 이루어지는 경우, 피투자회사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회사가 당해 피투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에 투자함에 따라 총 568억원의 증가가 있었으나, 일부 투자회사의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386억원의 순증가가 최근 5년(2003~2007) 동안 이루어졌다.

한국석유공사의 매도가능증권은 2003년의 94억원에서 2007년에는 285억원으로 총 191억원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사유는 베네수엘라 석유광구에 대한 합작회사(PetrOnado S.A)를 통한 간접적 지분 참여금액 227억원이 2006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됨에 기인한다.

한국토지공사의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이 2003년 대비 2007년에 1,028억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증가액 4,662원의 22.05%를 차지하였다. 한국토지공사의 매도가능증권 증가는 2007년에 ABS 후순위채권 542억원 취득과 (주)스페이스플러스별내 1, 2, 삼성 및 (주)알파돔시티와 관련하여 510억원을 투자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와 관련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 공기업별 매도가능증권 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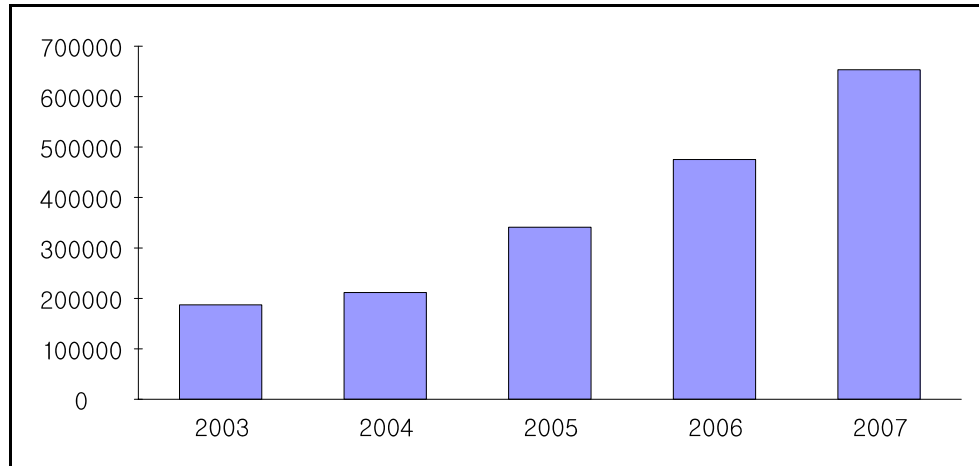
	2007	2006	2005	2004	2003	증감액
한국광물자원공사	1,074	570	3,528	7,743	193	881
대한석탄공사	—	—	—	—	—	—
대한주택공사	39,001	16,240	5,236	4	4	38,997
대한주택보증(주)	13,055	12,116	4,034	3,957	3,543	9,512
부산항만공사	2,924	2,619	1,819	—	—	4,480
인천국제공항공사	3,800	3,800	3,800	3,320	—	3,800
한국가스공사	231,952	148,873	69,855	7,744	3,204	228,740
한국감정원	—	—	200	200	200	△200
한국공항공사	90	90	90	90	90	—
한국관광공사	29,026	29,026	29,026	29,026	13,499	15,526
한국도로공사	49,673	49,673	36,693	14,044	11,014	38,659
한국석유공사	28,548	27,060	14,837	9,242	9,395	19,153
한국수자원공사	4,080	4,000	4,000	4,200	4,200	△120
한국전력공사	80,652	90,634	94,024	83,128	93,070	△12,418
한국조폐공사	81	81	81	81	125	△44
한국철도공사	8,723	8,723	9,931	—	—	8,72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4,488	39,073	33,763	28,327	35,266	9,222
한국토지공사	116,153	42,657	30,072	20,442	13,271	102,882
합 계	653,320	475,235	340,989	211,548	187,074	466,244

자료: 공기업 감사보고서 정리.

주: 산재의료원,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합계에서 제외함.

[그림 1] 공기업별 매도가능증권 보유현황 (2003-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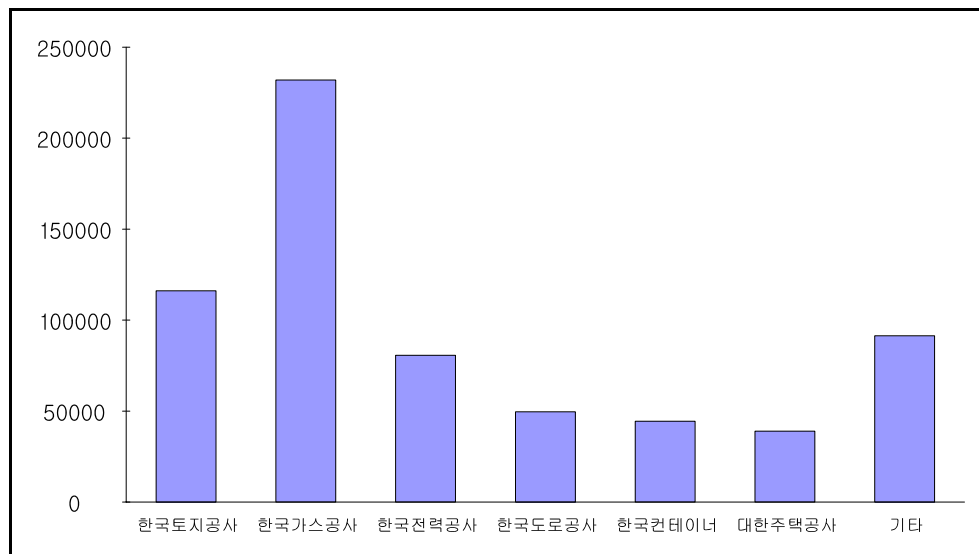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공기업 감사보고서 정리.

[그림 2] 공기업별 매도가능증권 보유 현황 (2007)

(단위: 백만원)



자료: 공기업 감사보고서 정리.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 현황

2007년 말 현재 24개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주식의 장부가액

은 다음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조 8,982억원으로 2003년의 24조 2,171억원에 비하여 5조 6,811억원 증가하였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증가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증가한 공기업 중 지분법적용주식 장부가액 증가를 이끈 주된 곳은 한국전력공사이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공기업 전체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9조 8,982억원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발전자회사를 포함하여 24개를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3년 대비 2007년에 5조 1,034억원 증가하였고, 이는 총 증가액인 5조 6,811억원의 89.83%에 해당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해외광업투자와 관련하여 지분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2003년 267원, 2004년 319억원, 2005년 630억원, 2006년 1,095억원, 2007년 말 현재 2,67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2005년 공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부가액 1,846억원의 증가가 있었다.

[표 4] 공기업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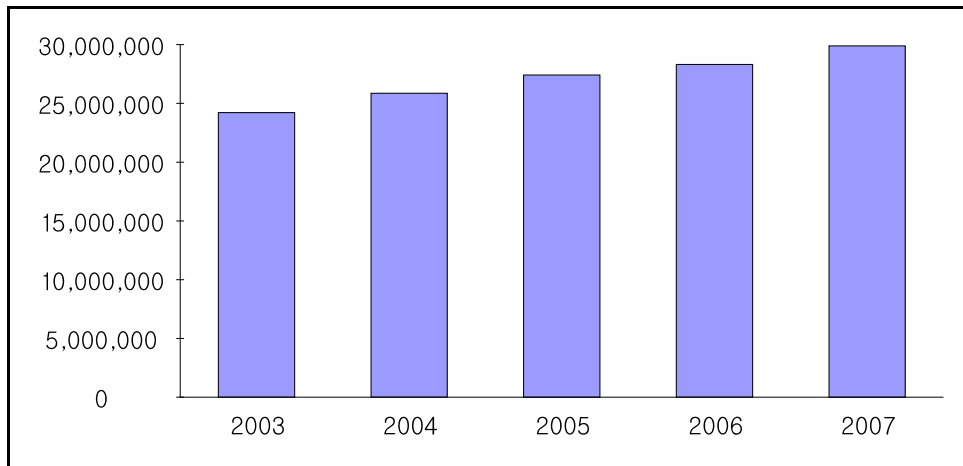
	2007	2006	2005	2004	2003	증감액
한국광물자원공사	267,086	109,578	63,027	31,889	26,723	240,363
대한석탄공사	2,000	—	—	—	—	2,000
대한주택공사	19,605	18,982	18,420	20,348	20,830	△1,225
부산항만공사	1,500	—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25,469	23,122	24,769	23,121	21,669	3,800
인천항만공사	415	—	—	—	—	415
한국가스공사	106,410	107,903	49,912	41,342	45,519	42,147
한국관광공사	150,822	110,554	103,168	71,253	67,575	83,451
한국도로공사	43,021	36,428	10,897	12,796	—	43,021
한국마사회	14,470	14,973	16,612	18,081	19,759	△5,289
한국석유공사	1,592	1,420	169,807	129,912	117,119	△115,528
한국수자원공사	10,584	9,713	8,871	10,743	13,102	△2,518
한국전력공사	28,875,755	27,553,581	26,703,438	25,379,703	23,772,264	5,103,491
한국지역난방공사	65,819	48,928	35,802	10,500	4,666	61,153
한국철도공사	184,638	180,536	128,149	—	—	184,638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25,385	16,974	9,779	8,562	—	25,385
한국토지공사	103,688	85,004	80,006	106,407	107,856	△4,168
합 계	29,898,259	28,317,696	27,422,657	25,864,657	24,217,082	5,681,177

자료: 공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평가목적에 맞게 정리.

주: 대한주택보증(주), 산재의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합계에서 제외함.

[그림 3] 2003-2007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Ⅲ. 공공기관별 지분증권 손실 현황-공기업을 중심으로

1. 지분투자로 인한 손실 총액

지분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업을의 손실 형태는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지분법손실, 지급보증의 확정부채로 인한 손실 등으로 다양하다.

24개 공기업 중 13개 공기업이 지분투자와 후순위채권 인수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손실의 규모는 총 709,940백만원이다.

[표 5] 공기업 지분투자 및 후순위채권 관련 손실 규모
(단위: 백만원)

	금 액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81,677
지분법손실	△112,878
후순위채권 감액손실	△475,576
지급보증의 확정부채금액	△39,809
합 계	△709,940

먼저 공기업이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 미만 소유함으로써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분증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액손실은 최근 5년 동안 총 81,677백만원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에서 발생하였다.

[표 6] 공기업 매도감액손실 규모(2003~2007)

(단위: 백만원)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손실액
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 CANADA Corp.(2003년)	△1,224
한국석유공사	(주)모벤스, 한국마이크로닉(주), (주)코네드, (주)텔레프리, 웹케이, 게이트뱅크, PetrOnado S.A, (주)드림텔레콤	△10,503
한국도로공사	드림라인(주)	△32,139
한국조폐공사	(주)몬덱스코리아	△200
한국토지공사	새롬성원, 스마트시티, 그린시티, (유)랜드피아	△3,713
대한주택보증(주)	출자전환채권 추가 손실액	△33,898
합 계		△81,677

다음으로 공기업이 2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공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지분법손실은 112,878백만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8개 공기업에서 발생하였다.

[표 7] 공기업 지분법손실 규모(2003~2007)

(단위: 백만원)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손실액
한국광물자원공사	Philco Resources Limited, 서안Maxun신재료유 한공사, KORES Canada Corp., 장가항안휘성래 용, 장기항공업재료, 암사 KMC(주), 광양합금철(주)	△3,37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에너지	△6,882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화열전(유), 안산도시개발(주), 한국CES(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수완에너지	△14,627
한국석유공사	인니NEM1, 인니NEM2 KNOC베냉	△2,586
한국철도공사 (민자역사)	창동역사(주), 신촌역사, 동인천쇼핑센터(주), (주) 비트플렉스, (주)산본역쇼핑센터, (주)현대아이파크 몰, 노량진역사(주), 부평역사(주), 평택역사(주)	△15,046
한국철도공사 (기타자회사)	대구북합화물터미널(주), 브이캐시(주), 드림허 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27,840
한국마사회	(주)YTN	△6,958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주)	△30,000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주)(취득원가와 장부가액 차액)	△5,560
합 계		△112,878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지분증권은 아니지만 감액손실의 규모가 큰 후순위 채권을 손실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후순위채권 감액손실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475,576백만원이 발생하였다.

[표 8] 공기업 후순위채권 감액손실 규모

(단위: 백만원)

투자회사	내역	손실액
대한주택공사	자산유동화 후순위채권	△131,300
한국토지공사	자산유동화 후순위채권	△344,276
합 계		△475,576

그 외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지급보증이 확정부채와
된 금액이 39,80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표 9] 한국부동산신탁(주) 관련 지급보증 손실내역

(단위: 백만원)

투자회사	내역	손실액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주) 지급보증의 확정부채화	△39,809

2. 공기업별 지분투자 손실액 현황

가. 한국광물자원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매도가능증권 중 2003년에 KORES Canada Corp.과 관련
하여 다음의 [표 10]에서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1,188백만원이나, 매
도가능증권감액손실 1,224백만원 계상하고 이를 국고보조금수익과 상계하였다.

KORES Canada Corp.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케나다 현지법인으로 광물자원
을 생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0] 한국광물자원공사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2003			
	취득가액(a)	장부가액(b)	차액(b-a)	감액손실
KORES Canada Corp.	1,381	193	△1,188	△1,224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중 지분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다음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인식한 지분법손실액은 3,37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사비, 대규모 시설장비 구입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었으나, 아직 생산단계에 이르지 못하거나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KMC(주)와 광양합금철(주)은 2006년에 설립되어 영업 준비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지분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표 11] 한국광물자원공사 지분법손실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합계
Philco Resources Limited	△110	△456	△592	—	△1,158
서안Maxun신재료유한공사	—	△592	△109	—	△701
KORES Canada Corp.	—	△17	△3	—	△20
장가항공업재료유한공사	—	△159	—	—	△159
장가항안회성래용	△3	—	—	—	△3
암사	△89	—	—	—	△89
(주)NRC	—	△240	—	—	△240
KMC(주)	△434	—	—	—	△434
광양합금철(주)	△575	—	—	—	△575
합 계	△1,211	△1,464	△704	—	△3,379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나. 대한주택공사: 자산유동화 관련 후순위채권 감액손실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업무에 따라 취득한 임대주택 관련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동사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시키고 자금조달의 mismatch의 위험을 축소시키며, 조달된 자금을 이용하여 공공적인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를 추진하였다.

대한주택공사가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은 1999년과 2000년 2회에 걸쳐 9,413억원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자산유동화⁶⁾를 통하여 8,100억원을 현금 조달하면서 후순위채권 1,313억원을 인수하였다.

통상 유동화자산을 매입한 SPC가 청산하는 과정에서 후순위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이 없는 경우 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영("0")이 되는데,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대한주택공사는 다음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13억원 전액을 감액손실을 계상하였다.

[표 12] 대한주택공사 후순위채권감액손실

(단위: 백만원)

	2004	2003	2002	합계
후순위채권감액손실	-	△29,500	△101,800	△131,300

자료: 대한주택공사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편집.

다. 대한주택보증(주): 구상채권의 출자전환

대한주택보증(주)의 주된 업무인 보증업무로 인하여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되어 발생한 손실액은 다음의 [표 13]와 같다.

대한주택보증(주)이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출자전환한 금액 중 손실이 발생한 출자전환채권은 96,010백만원이었다. 이들 회사가 최종부도 등으로 인하여

6) 대한주택공사가 유동화한 자산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일정기간 이후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채권, 인상된 보증금채권 및 분양대금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생한 출자전환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최근 5년(2003~2007)동안 82,077백만원이다.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채권이 출자전환된 것으로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동 매도가능증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손실액이다.

[표 13] 대한주택보증(주)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단위: 백만원, %)

	출자전환가액	장부가액	차액	비고
LIG건설(주)	32,142	11,109	△21,033	보유
충남방직(주)	17	8	△9	보유
국제종합토건(주)	290	290	—	보유
일신석재	696	67	△629	매각
울트라건설	2,369	149	△2,220	매각
두산산업개발	1,049	1,005	△44	매각
동양철관	172	9	△163	매각
일성건설(주)	505	433	△72	매각
서한	205	85	△120	매각
진도	19	7	△12	매각
코스모화학	63	8	△55	매각
통일중공업	211	58	△153	매각
(주)우방	6,804	293	△6,511	매각
(주)우방타워랜드	3,323	103	△3,220	매각
(주)한일합섬	3,867	309	△3,558	매각
(주)새롬성원	44,278	—	△44,278	매각
합 계	96,010	13,933	△82,077	

자료 : 대한주택보증(주) 감사보고서 재정리.

그러나 출자전환 이전에 대한주택보증(주)이 구상채권으로 보유할 때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상태에서 출자전환된 것이므로, 출자 이후의 추가손실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다음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자전환되어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한 이후 대한주택보증(주)이 입은 손실액의 규모는 총 33,898백만원이다.

대한주택보증(주)의 매도가능증권은 타 공기업의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 타 공기업의 경우는 목적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부대사업수익 증진을 위하여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한주택보증(주)의 경우 주된 사업인 보증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 채권의 출자전환이다.

최근 5년 동안 대한주택보증(주)은 안정적인 보증수수료 및 추가적인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출자 전환된 채권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의 규모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대한주택보증(주) 매도가능증권 관련 손익

(단위: 백만원, %)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합 계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961	—	1,129	1,354	750	—	—	4,194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	—	△926	—	△9	—	—	—	△936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환입	—	9,062	261	57	—	—	—	9,380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	—	△103	△9,471	△6,459	△574	—	△16,607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	—	—	—	—	△13,125	△16,805	△29,930
합 계	961	8,136	1,287	△8,069	△5,709	△13,699	△16,805	△33,898

자료: 대한주택보증(주) 감사보고서 재정리.

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에너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말 현재 인천공항에너지(주)에 18,014백만원을 투자하여 3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순자산가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결손금이 41,336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분법적용투자주

식으로 계상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장부가액이 2007년에는 4,220백만원에 머물러 투자액 대비 13,794백만원 하락하였으며, 2003년부터 인식한 지분법 손실액은 6,88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표 15] 인천공항에너지(주) 장부가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P/L 지분법손실
2007	34.00	18,014	4,220	4,220	△523
2006	34.00	18,014	4,841	4,841	△3,991
2005	34.00	18,014	8,924	8,924	6
2004	34.00	18,014	9,001	9,001	△127
2003	34.00	18,014	9,204	9,204	△2,241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1) 인천공항에너지(주) 손익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주)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계획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및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안정적 공급을 사업목적으로 1997년 5월 19일자로 설립된 회사이다.

인천공항에너지(주)는 2000년 10월 31일에 한국전력공사와 병렬운전을 통한 무정전 운전과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및 관련시설물의 건설을 완료한 후, 1997년 2월 21일 건설교통부와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 제5조에 의거 2001년 3월 29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일자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및 열을 에너지수요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최근 5년간의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기순손실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높은 매출원가와 과도한 이자비용을 들 수 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계산되는데, 인천공항에너지(주)의 매출원가 중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는 관리운영권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는 실제로 현금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영업이익에 무형자산상각비와 감가상각비를 더한 EBITDA를 기준으로 인천공항에너지(주)의 현금창출능력을 살펴보겠다.

다음의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공항에너지(주)의 EBITDA는 최근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매출액증가율은 매년 5.61%~20.64%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매출원가율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비용으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지속화되고 있다.

[표 16] 인천공항에너지(주) 손익현황 및 수익성 지표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매 출 액	75,651	62,707	59,373	50,048	43,854
매출원가	67,179	59,927	49,097	39,274	36,999
판매비와관리비	1,384	1,415	1,151	1,260	971
영업이익	7,088	1,365	9,125	9,513	5,884
EBITDA	11,006	5,309	12,874	13,034	10,903
이자비용	8,939	8,269	7,962	10,547	13,404
당기순이익	△1,291	△6,863	△4,857	△374	△6,590
자기자본수익률	△10.20%	△48.20%	△22.72%	△1.41%	△24.34%
총자본순이익률	△0.78%	△4.28%	△2.95%	△0.23%	△4.01%
매출액영업이익률	9.37%	2.18%	15.37%	19.01%	13.42%
EBITDA/매출액	14.55%	8.47%	21.68%	26.04%	24.86%
매출원가율	88.80%	95.57%	82.69%	78.47%	84.37%

자료: 인천공항에너지(주) 감사보고서 재정리.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보면, 총자산에서 금융성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인 차입금의존도가 80% 이상이고 200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부채/자본)이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

년과 2007년은 1000%를 넘어서고 있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하고 있다.

[표 17] 인천공항에너지(주) 재무구조 및 재무건전성 지표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금융성부채	132,386	129,500	129,500	134,500	134,500
부채	152,351	146,120	143,366	137,600	137,077
자본	12,657	14,240	21,372	26,473	27,070
부채 / 자본	1203.71%	1026.16%	670.82%	519.78%	506.38%
차입금의존도	80.23%	80.76%	78.61%	81.98%	81.94%
이자보상배율(배)	0.79	0.17	1.15	0.90	0.44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따라서 인천공항에너지(주)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낮지 않으나, 높은 원가율과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결손이 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인천공항에너지(주)에 투자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최초 투자 이후 감소되어 2007년에는 4,220백만원에 머물러 투자액 대비 13,794백만원 하락하였으며, 회복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마.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주) 지분법손실 및 지급보증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신탁(주)에 30,000백만원을 투자하여 28.4%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2000년까지 지분법손실로 전액 인식하였다.

투자로 인한 손실액 30,000백만원 외에 한국감정원은 자회사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총 39,809백만원을 2021년 5월 10일까지 매년 2회 균등분할상환하는 약정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체결하였다.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신탁(주)의 채무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이 확정부채(장기미지급금)화 되었다.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투자액은 300억원으로 전액 감액손실 반영하였으며, 한국부동산신탁(주)의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보증이 확정부채화된 금액 39,809백만원을 포함한 69,80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부동산신탁(주)의 사례와 같이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모회사의 재무건전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표 18]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 관련 약정내용

2002년 7월 30일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대보증채무의 분할상환약정 체결
(1) 채무분할상환약정일 현재 2002년 중 증가된 2123백만원을 포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총채무 43,355백만원 중 3546백만원은 감면하고 39,809백만원은 20년동안 연 2회 매회 균등분할상환한다.
(2) 분할상환원금 중 184억원은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3) 분할상환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분할상환일 3일전 한국증권업협회 공시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표에 의한 3개월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적용한다.

자료: 한국감정원 2002년 감사보고서.

바. 한국도로공사: 드림라인(주) 손실액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자가통신설비의 여유분을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드림라인(주)이 설립할 당시부터 초기투자료 1주당(1주당가액 5,000원) 평균 12,026원에 전체 주식의 15.37%를 44,028백만원에 취득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드림라인에 투자할 당시는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한 IT시장의 활황이었으므로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지능화사업(ITS)에 필요한 광케이블 용량 이외에 발생하게 되는 잉여분을 안정적으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 이외에 지분투자를 함으로 인하여 향유하게 되는 배당수익을 포함한 투자수익을 염두에 두고 드림라인(주)에 대한 직접투자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드

7) 드림라인(주)은 이동통신전화사업자, 일반기업,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전용통신망의 임대 및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년 7월 31일 설립되었다.

림라인(주)은 1999년 12월 18일 코스닥에 등록하였으나 초고속인터넷사업부문의 지속적인 영업악화로 인하여 2003년에 9월 19일에 코스닥 등록이 취소되어 유가증권의 시장성을 잃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드림라인(주)의 장부가액은 5,991백만원으로 취득원가인 44,028백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드림라인(주)로 인하여 38,037백만원의 손실을 장기투자증권평가손실(자본조정)로 인식하다 이 중 32,139백만원을 2006년에야 유료도로관리권상각비누계액(이익잉여금)에서 반영하였다.

[표 19] 한국도로공사 드림라인(주)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투자액	44,028	44,028	44,028	44,028	44,028
순자산가액	9,768	9,595	5,991	5,991	11,891
장부가액	5,991	5,991	5,991	5,991	5,991

자료: 한국도로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사. 한국마사회: (주)YTN 지분법손실

한국마사회의 (주)YTN 투자액은 2007년 말 현재 20,000백만원이다. 그런데 다음의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마사회의 (주)YTN에 대한 투자 후 장부가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분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최초 투자액 20,000백만원 대비 2007년 말 잔액은 14,470백만원으로 5,530백만원이 하락하였으며, 2003년부터 손익계산서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분법손실 누적액은 6,958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에서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 및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 기여를 그 설립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36조⁸⁾에서 마사

8)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1.12.31, 2005.5.31, 2007.4.11>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가. 경마의 개최
나. 말·마주 및 복색의 등록

회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된 핵심사업은 경마의 시행, 마사의 진흥 등이다. 따라서 (주)YTN 투자는 주된 사업과 연관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업과 낮은 연관성을 띄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투자가 부대수익 창출을 위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가정하여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누적된 지분법손실이 6,958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등 마사회 당기순이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5년 동안 지속된 지분법손실은 한국마사회가 (주)YTN의 기업 가치를 높게 보고 당시 순자산가액이 19억원에 불과한 (주)YTN을 200억원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영업권⁹⁾ 181억원을 10년 동안 매년 18억원씩 상각하는 것과 (주)YTN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었지만 영업권상각액을 상회할 정도로 높지 않음에 따라 지분법손실이 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취득 당시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을 예상하여 순자산가액 19억원에 해당하는 (주)YTN을 200억원을 들여 투자하였지만,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2007년 말 현재까지도 장부가액이 여전히 취득원가를 하회함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주)YTN의 기업 가치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 조교사·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

라. 기수의 양성 및 훈련

2. 마사의 진흥에 관한 사업

가. 말의 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나. 말의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연구

다. 말의 이용에 관한 지도장려

3. 「축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4. 경마장안의 간이체육시설 및 시민위락시설의 설치·운영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하여 행하는 경마와 유사한 사업

6.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출연 및 보조

9. 경마시행 관련 시설·장비의 임대·판매 및 경마시행 관련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 사업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영업권은 특정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으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합병·인수 할 때 상대방에게 지불한 총금액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차감한 부분에 해당한다.(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해설 p601, 삼일회계법인)

[표 20] 한국마사회 지분법적용투자주식(2003~2007)

(단위: 백만원, %)

	지분을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P/L 상 지분법손실	영업권 상각액
2007	9.5	20,000	12,664	14,470	△459	△1,806
2006	9.5	20,000	11,360	14,973	△1,619	△1,806
2005	9.5	20,000	11,192	16,612	△1,602	△1,806
2004	9.5	20,000	10,840	18,081	△1,675	△1,806
2003	9.5	20,000	5,366	19,759	△1,604	△1,806

자료: 한국마사회 감사보고서 재정리.

다만 다음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YTN의 2004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확대되는 등 방송 및 타워 매출의 증가 등으로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장부가액이 투자액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주)YTN 당기순이익(2003~2007)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당기순이익	9,520	2,769	2,094	1,440	2,073

자료: (주)YTN 감사보고서 재정리.

아. 한국석유공사: 자금투자로 인한 10,503백만원 감액손실

(1)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한국석유공사는 다음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개 회사에 대하여 29,316백만원을 투자하여 10,503백만원의 감액손실을 인식하였다.

한국석유공사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곳 중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을 취득한 곳은 PetrOnado S.A로 합작회사를 통한 해외석유광구에

대한 간접 지분 참여 형태이며 2006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강제적 지분 축소로 인한 순자산가액 하락분이 감액손실로 처리되었다.

반면 한국석유공사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하게 자금운용목적으로 한국마이크로닉(주), (주)모벤스, 웹케시(주), 게이트뱅크(주), (주)코네드, (주)텔레프리, (주)드림텔레콤 등에 투자하여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처리한 바 있다. 이들 기업 중 일부의 사업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2억원을 투자한 (주)모벤스는 CDMA 단말기 계측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11억원을 투자한 웹케시(주)는 전자금융사업과 관련하여 기기판매, 시스템공급 및 운송관련업, 전자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1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게이트뱅크(주)는 전자금융사업과 관련한 금융서비스업무대행, 기기임대, 시스템공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웹케시(주)로부터 인적분할되었다.

이처럼 투자처의 주요 사업 내용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목적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투자 이후 감액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표 22] 한국석유공사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단위: 백만원)

	취득가액	장부가액	감액손실	사업목적
PetrOnado S.A	22,755	18,234	△4,371	석유개발
한국마이크로닉(주)	775	379	△396	호텔 객실 관리시스템
(주)모벤스	1,270	—	△1,270	CDMA 단말기 계측기
웹케시(주)	1,088	19	△1,069	디지털 금융솔루션
게이트뱅크(주)	1,088	31	△1,057	디지털 금융솔루션
(주)코네드	1,120	—	△1,120	생분해성 플라스틱/에어필터
(주)텔레프리	230	—	△230	인터넷 전화장비
(주)드림텔레콤	990	—	△990	유무선 전화기
합 계	29,316	18,663	△10,503	

자료: 한국석유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2) 지분법손실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다음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개 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손실 2,586백만원 인식하였다. 아래의 지분투자에 대하여 2006회계연도부터 투자자산에서 무형자산 등으로 계정대체 하였으며 이후 회사별 손익은 매출액 등에 반영되었다.

[표 23] 한국석유공사 지분법손실

(단위: 백만원)

	2005
인니NEM1	△986
인니NEM2	△529
KNOC베냉	△1,071
합 계	△2,586

자료: 한국석유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자.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주) 지분법손실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경인운하(주)의 취득원가는 12,778백만원이나,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7,218백만원에 불과하여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5,560백만원이다.

[표 24] 한국수자원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a)	순자산가액	장부가액(b)	차액(b-a)
경인운하(주)	19.41	12,778	7,218	7,218	△5,56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최초 투자액보다 낮은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있는 경인운하(주)의 손익현황을 살펴 본 결과, 2006년까지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경인운하사업이 예상과 달리 추진되지 않음에 기인하고 있다.

경인운하(주)의 2004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경인운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취소처분을 받아 소를 제기하였으며, 계속기업 가정과 관련하여 현대건설(주) 등 주요 주주사와 회사의 존속에 대하여 협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소송은 취하하고 해지시지급금 360억원을 2007년 12월에 수령하였다.

경인운하사업은 2008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경인운하(주)의 향후 영업환경 등에 대한 추정은 곤란하다. 따라서 본 평가보고서는 2007년까지 발생한 지분법손실액의 규모만을 반영하였다.

[표 25] 경인운하(주)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매출액	—	—	—	—	—
매출원가	—	—	—	—	—
판매비와관리비	1,447	833	1,095	1,332	1,546
영업이익	△1,447	△833	△1,095	△1,332	△1,546
당기순이익	2,781	38	87	22	73

자료: 경인운하(주) 감사보고서 재정리.

차. 한국조폐공사: (주)몬텍스코리아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한국조폐공사의 2007년 말 현재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은 81.4백만원이며, 서울스마트카드(주) 투자액이다. 이는 2003년에 투자한 (주)몬텍스코리아에 대한 투자액 200백만원을 감액손실로 처리함으로써 장부가액이 영("0")으로 처리됨에 따라 장부가액이 전액 서울스마트카드(주) 주식 평가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전자화폐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고자 (주)몬텍스코리아에 2억원을 투자하였지만 회수가능가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3년에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하였다.

한국조폐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주)몬텍스코리아는 전자화폐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자화폐 운영시스템 개발 및 운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0일에 설립된 회사이다. 그러나 전자화폐 시장은 예상과 달리 활성화되지 않아 2005년 4월에 영업을 중단하였다. (주)몬텍스코리아의 200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손실이 44억원, 당기순손실이 87억원이며, 2003년 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50억원 초과하고 있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95억원 초과하고 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억원의 손실을 낸 (주)몬텍스코리아에 대한 투자는 한국조폐공사법¹⁰⁾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의 주된 임무에는 다소 벗어나는 투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목적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투자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조폐공사가 81,000천원(0.16%) 투자하고 있는 서울스마트카드(주)도 역시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하고 있으나, 2007년에 유상증자 실시로 자본잠식은 면한 상황이다.

[표 26] 한국조폐공사 매도가능증권

(단위: 백만원)

	2007년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서울스마트카드((주)	81	—	81
(주)몬텍스코리아	200	—	—
합 계	281	—	81

자료: 한국조폐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한국조폐공사가 투자하여 2억원 전액을 감액한 (주)몬텍스코리아는 2001년에 비로소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2002년에 잠시 확대된 후 2003년에

10)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서는 은행권·주화·국채·공채·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두고 있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설립 이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2002년에는 완전자본잠식 되었음을 다음 [표 27]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표 27] (주)몬텍스코리아 경영현황(2001~2003)

(단위: 백만원)

	2003	2002	2001	2000	1999
자 산	5,986	14,662	25,029	14,226	13,539
부 채	15,528	15,531	16,616	2,180	3,342
자 본	△9,543	△870	8,412	12,046	10,197
매 출 액	1,357	6,220	4,359	—	—
영 업 이 익	△4,419	△5,752	△3,408	△3,991	△1,296
당기순이익	△8,687	△9,721	△3,651	△4,751	△1,066

자료: (주)몬텍스코리아 감사보고서 재정리.

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법손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사 중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하회하는 등 지분법손실이 발생하는 곳에 2007년 말까지 투자한 금액은 55,720백만원이다. 이들 회사의 대부분은 누적적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분법손실을 인식한 금액은 다음의 [표 2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14,62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안산도시개발(주), 동화열전(유), 한국CES의 경우 결손금 등의 누적으로 2004년 이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투자주식이 영("0")이하가 되어 이미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다. 지분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주), 한국지역난방기술(주)의 경우 최근 4년 동안(2004~2007)은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거 결손금의 규모가 커서 투자주식의 잔액이 영이다. 다만, 안산도시개발(주)의 경우 초기투자 완료 및 안정적인 운영단계로 당기순이익이 확대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장부가액이 투자액을 상회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인천종합에너지에 37,833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2007년 말까지 지분법손실은 총 5,13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인천종합에너지(주), 수완에너지(주)의 경우 초기 투자비 회수기간이 긴 장치산업의 특성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 중인 사업임과 향후 사업 성숙기 진입 시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장부가액이 투자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곤란하다.

[표 28]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법손실액

(단위: 백만원)

	투자액	장부가액	P/L상 지분법손실액	비고
안산도시개발(주)	2,739	—	△2,739	장부가액 영("0")
동화열전(유)	5,430	—	△5,430	장부가액 영("0")
한국지역난방기술(주)	400	—	△400	장부가액 영("0")
인천종합에너지(주)	37,833	32,569	△5,264	
한국CES(주)	618	4	△614	
수완에너지(주)	8,700	8,520	△180	
합 계	55,720	41,093	△14,627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편집.

주 1. 2007년 말 잔액임.

- 안산도시개발(주)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거 결손금이 누적되어 투자주식의 가액이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장부가액이 영임.
- 동화열전(유)은 지속적인 손실로 장부가액 "0"이며 투자액 5,429백만원 전액 손실 발생함.
- 건설 중인 자회사 : 인천종합에너지(주)(’09. 11 준공 예정), 수완에너지(주)(공사 중단)

[표 29]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법적용투자회사 당기순이익(2004~2007)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안산도시개발(주)	3,328	2,210	3,074	1,912
동화열전	△4,182	△3,970	△3,956	△5,096
인천종합에너지	△3,740	△2,770	△3,359	△759
한국CES(주)	264	233	261	128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다. 한국철도공사: 민자역사 및 기타 자회사 지분법손실

(1) 민자역사 손실 발생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 중 자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17개 민자역사에 107,756백만원, 기타 자회사 14곳에 66,695백만원을 출자하여 전체 174,451백만원을 자회사에 출자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중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를 하회하여 입은 손실액은 민자역사가 15,046백만원, 기타 자회사가 27,840백만원으로 총 42,886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민자역사 지분은 한국철도공사로 출범하면서 (구)철도청으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것으로 17개 민자역사 중 영업 부진 혹은 건설 중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영업이 발생하지 않아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하회하고 있는 곳이 9곳으로 7곳은 장부가액이 영("0")이고, 2곳은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하회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이 영("0")인 민자역사 7곳은 (주)창동역사, (주)신촌역사, 동인천쇼핑센터(주), (주)비트플렉스, (주)산본역쇼핑센터, (주)현대아이파크몰, 노량진역사(주)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취득가액 14,402백만원 전액이 손실로 반영되었다. (주)창동역사, (주)신촌역사, (주)신세계의정부역사 등과 같이 건설 중에 있어 영업이 개시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곳과 (주)동인천역쇼핑센터, (주)산본역사, (주)현대아이파크몰과 같이 영업 중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창동역사, (주)신촌역사 등과 같이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영("0")이나 건설 중에 있는 민자역사의 경우, 향후 본격적인 영업이 개시될 경우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곤란하다.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하회하고 있는 민자역사 2곳은 부평역사(주), 평택역사(주)이다. 부평역사(주)의 경우 최근 3년(2005~2007) 연속 적자를 보이는 등 영업이 악화되고 있어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이 327백만원으로 취득가액 682백만원보다 355백만원을 하회하고 있다. 평택역사(주)는 장부가액이 3,796백만원으로 최초 취득가액 4,085백만원보다 289백만원이 적은 상황이나, 건설 중에 있어

본격적인 영업이 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상회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곤란하다.

[표 30] 한국철도공사 민자역사 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지분율	취득가액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비고
롯데역사(주)	25.00	66,583	126,489	114,956	영업중
부천역사(주)	25.00	6,833	7,242	8,088	영업중
부평역사(주)	25.00	682	305	327	영업중
창동역사(주)	31.25	1,500	△8,703	—	건설중
신촌역사(주)	29.41	1,500	△1,709	—	영업중
안양역사(주)	25.00	671	1,330	1,265	영업중
동인천쇼핑센터(주)	20.00	750	△2,046	—	영업중
(주)비트플렉스	28.74	4,000	△1,186	—	건설중
(주)산본역쇼핑센터	21.03	652	△4,381	—	영업중
한화역사(서울역)(주)	30.07	7,088	10,973	9,612	영업중
한화청량리역사(주)	24.55	5,412	5,402	5,437	영업중
(주)현대아이파크몰	47.40	5,500	△26,044	—	건설중
노량진역사(주)	55.67	500	△841	—	건설중
평택역사(주)	100.00	4,085	3,240	3,796	건설중
성북역사(주)	25.00	500	247	500	건설중
신세계의정부역사(주)	25.00	1,000	6	1,000	건설중
천안역사(주)	25.00	500	994	500	건설중
합 계		107,756	111,319	145,479	

자료: 한국철도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주: 2007년 말 현황.

(2) 기타 자회사 손실 발생

한국철도공사는 민자역을 제외한 기타의 자회사 14곳에 66,695백만원을 출자하고 있다.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등 많은 출자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를 상회하고 있으나,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브이캐시

(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등의 경우 장부가액이 취득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3개 회사에 대한 투자액은 33,330백만원이나 장부가액은 5,490백만원에 머물고 있어 27,840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200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말 현재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와 브이캐시(주)는 청산 진행 중이며,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전액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으로 10,383백만원 감액처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건설 중인 회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장부가액이 취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향후 본격적인 영업 확대에 만회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장부가액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표 31] 한국철도공사 기타 자회사 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투자액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25.00	23,840	5,490	5,490
(주)경인아이시디	25.00	1,765	1,788	1,796
코레일개발(주)	79.67	2,838	1,958	2,583
코레일로지스(주)	49.45	3,339	2,658	3,148
브이캐시(주)	91.47	7,995	—	—
코레일네트웍스(주)	25.54	15,886	8,885	14,616
코레일유통(주)	29.90	3,142	7,985	4,860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25.00	1,495	1,294	—
코리얼 에드컴(주)	98.13	917	2,898	917
코레일트랙(주)	100.00	1,617	5,266	1,617
코레일투어서비스(주)	51.00	1,789	1,622	1,789
코레일전기(주)	100.00	500	1,270	500
코레일엔지니어링(주)	60.00	675	576	676
용산역세권개발(주)	29.90	897	883	897
합 계		66,695	42,573	38,889

자료: 한국철도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주: 2007년 말 현황.

한국철도공사의 취득가액이 순자산가액과 장부가액보다 낮은 피투자회사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이들 피투자회사 대부분이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자본이 일부 혹은 완전 잠식된 상태이다.

[표 32] 한국철도공사 피투자회사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부평역사(주)	△807	△401	△195
창동역사(주)	△428	△4,852	△12,412
신촌역사(주)	2,917	△7,620	△3,098
동인천쇼핑센터(주)	△1,020	△1,896	△879
(주)비트플렉스	△6,217	△1,684	△2,010
(주)산본역쇼핑센터	△1,989	△481	1,252
(주)현대아이파크몰	△46,454	△39,859	△21,489
노량진역사(주)	△1,474	△1,051	△1,060
평택역사(주)	△591	△518	—
성북역사(주)	△136	△110	△17
신세계의정부역사(주)	△1,289	△801	△699
대구북합화물터미널(주)	△77	△1,909	△351
브이캐시(주)	—	△2,714	△4,393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28	—	—

자료: 한국철도공사 감사보고서 및 (주)산본역쇼핑센터 감사보고서 재정리.

파. 한국토지공사: 후순위채권 및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감액손실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에 부(-)의 효과를 발생시킨 규모는 총 347,989백만원이다.

한국토지공사의 매도가능증권 혹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한국토지공사가 기업토지와 조성 후 매각한 토지의 매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인수한 후순위채권액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

증권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인식한 감액손실 규모가 2002년~2008년 동안 344,276백만원이며, 둘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액이 2002년~2007년 동안 3,71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주)새롬성원은 2003년에 총 2,513백만원의 채권을 출자전환한 것으로 2004년 923백만원, 2005년에 939백만원, 2007년에 651백만원의 감액손실이 각각 발생하여 2,513백만원을 손실처리하였다.

스마트시티(주)와 그린시티(주)는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손실을 본 경우로,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터 PF사업을 수행하는 스마트시티(주)에 99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2004년도에 전액 감액손실로 처리하였다. 그린시티(주)는 용인죽전역세권개발PF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가 20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2003년에 전액 감액손실 처리하였다.

후순위채권 감액손실 344,276백원은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업토지 및 토지할부매출채권을 총 9회¹¹⁾에 걸쳐 자산유동화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용보강차원에서 paper company로부터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후, 선순위채권의 원리금상환시점에 유동화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순자산가액(회수가능가액)이 후순위채권가액을 하회할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발생한 것이다.

12) 한국토지공사는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토지 및 매입용 채권의 이자비용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조달 하고자 1999~2008년에 걸쳐 비유동성 자산인 기업토지 및 토지할부매출채권의 유동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토지공사는 기업토지 ABS는 2회에 걸쳐 11,100억원, 토지할부채권 ABS는 7회에 걸쳐 24,944억원 등 총 9회에 걸쳐 36,044억원을 발행하여 후순위채권 5,394억원을 제외한 30,650억을 조기 현금화하였다.

[표 33] 한국토지공사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단위: 백만원)

	2007	2005	2004	2003	2002	합 계
새롬성원	652	938	923	—	—	2,513
스마트시티	—	—	995	—	—	995
(주)그린시티	—	—	—	200	—	200
(유)랜드피아	—	—	—	5	—	50
지분증권 소계	652	938	1,918	205	—	3,713
후순위채권	—	—	2,172	158,824	183,280	344,276
합 계	652	938	4,090	159,029	183,280	347,989

자료: 한국토지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주: 대한주택보증(주)은 2002년에 7,132백만원 감액손실 처리하였으나, 이후 영업이 정상화되고 순자산가액이 회복되어 2007년에 20,787백만원 감액손실 환입함에 따라 감액손실의 규모에서 제외함.

IV. 공공기관의 지분증권 관련 이슈사항

1. 추가손실 발생 가능 지분증권

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다음의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Paper Company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2007년까지 두 공기업의 총 투자액은 1,255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두 공기업의 투자액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공기업의 투자는 택지개발과 관련한 복합단지 개발사업회사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축임대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다.

[표 34] 부동산 PF 투자 현황(2003~2007)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대한주택공사	39,001	16,240	5,234	—	—
한국토지공사	86,572	32,017	20,627	9,858	570
합 계	125,573	48,257	25,861	9,858	570

자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목적에 맞게 재정리.

주: 투자현황은 감사보고서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임.

이를 다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주택공사의 부동산 PF 관련 투자액을 살펴보면, 아산배방지역 택지개발사업,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복합단지개발사업회사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각각 12,152백만원 및 8,089백만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비축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수원 호매실, 파주 운정 등에 시범사업을 추진

함에 따라 수원호매실택지개발지구의 특수목적법인인 (주)금곡하우징, (주)호매실하우징에 각각 3,307백만원, 2549백만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주)파주하우징에 3,671백만원을 출자하는 등 총 9,527백만원을 비축용임대사업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고 있다.

[표 35] 대한주택공사 부동산 PF 투자액 현황(2003~2007)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비고
(주)펜타포트개발	12,152	8,031	5,174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
(주)펜타포트	60	60	60	
(주)엠시에타개발	8,089	8,089	—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주)엠시에타	1,130	60	—	
(주)충주기업도시	8,043	—	—	충주기업도시개발
(주)금곡하우징	3,307	—	—	비축용임대사업
(주)호매실하우징	2,549	—	—	
(주)파주하우징	3,671	—	—	
합 계	39,001	16,240	5,234	

자료: 대한주택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목적에 맞게 재정리.

주: 투자현황은 감사보고서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임.

다음으로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PF관련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다.

한국토지공사는 용인죽전지구, 용인동백지구, 대전엑스포지구, 화성동탄복합단지PF사업,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 광주수완호수공원쇼펍몰PF 사업 등 택지개발지구의 PF사업에 지분 참여한 가액은 2007년 말 현재 81,199백만원이다. 부동산PF사업자인 민간 컨소시엄에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택지를 조성하는 것 외에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의 비축용임대사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시행하는 남양주 별내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까지 5,373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표 36] 한국토지공사 부동산 PF 투자액 현황(2003~2007)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비고
(주)그린시티	4,340	4,140	4,340	4,340	200	용인 죽전지구
(주)쥬네브	6,260	6,260	4,088	3,667	570	용인 동백지구
(주)메타폴리스	10,507	10,507	1,671	796	—	화성 동탄지구
스마트시티	9,413	8,418	9,413	995	—	대전엑스포지구
스마트시티자산관리	60	60	60	60	—	
모닝브릿지	2,337	995	995	—	—	용인 동백지구
모닝브릿지자산관리	60	60	60	—	—	
레이크파크	2,470	—	—	—	—	광주수완지구
레이크파크자산관리	57	—	—	—	—	
(주)스페이스플러스별내1	1,373	—	—	—	—	남양주 별내 국민임대 주택단지
(주)스페이스플러스별내2	975	—	—	—	—	
(주)스페이스플러스별내삼송	3,025	—	—	—	—	
(주)알파돔시티	45,600	—	—	—	—	성남 판교지구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	95	—	—	—	—	
광주수완PF	—	1,577	—	—	—	광주수완지구 레이크파크
합 계	86,572	32,017	20,627	9,858	770	

자료: 대한주택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목적에 맞게 재정리.

주: 투자현황은 감사보고서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임.

이렇듯 최근 3~4년 동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공기업의 매도가능증권 투자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대한주택공사가 2007년 말 현재 39,001백만원, 한국토지공사가 86,572백만원 등 125,57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개발의 침체 등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향후 회수가능가액이 투자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장부가액이 투자액보다 하락할 위험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PF사업에 지분 참여함으로 인한 손실액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나. 한국관광공사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투자

한국관광공사가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비상장주식으로 시장성이 없고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다.

[표 37] 한국관광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17.42	29,026	25,243	29,026

자료: 한국관광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그런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순자산가액은 다음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취득원가와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은 △3,78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표 38]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순자산가액 현황

(단위: 백만원)

	취득원가(a)	순자산가액(b)	차액(b-a)
2007년	29,026	25,243	△3,783
2006년	29,026	26,088	△2,937
2005년	29,026	26,593	△2,432
2004년	29,026	27,691	△1,335

자료: 한국관광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한국관광공사가 29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제주도 중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용역업과 국제회의시설 운영, 쇼핑센터, 면세점, 기타 관광산업 및 컨벤션센터 부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음의 [표 39]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손익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3년에 개관하여 목적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07년까지 매출액의 증가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상회하고 고정적으로 10억원 이상 발생하는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은 물론 당기순이익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부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표 39]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손익(2002~2007)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매출액	3,518	3,005	2,149	2,315	972	-
매출원가	7,650	7,860	7,465	7,226	-	-
판매비와관리비	1,151	1,031	1,069	1,313	7,833	1,520
영업이익	△5,284	△5,886	△6,385	△6,223	△6,861	△1,520
당기순이익	△4,856	△2,879	△6,528	△6,701	△7,116	△585

자료: 한국관광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매출원가를 상쇄할만한 매출액 규모가 지금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아 매도가능증권의 손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신항만(주) 투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부산신항만(주)에 2007년 말 현재 44,488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신항만공사¹²⁾의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하고 있어 손익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부산신항만(주)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였다.

따라서 2007년 말 현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비록 장부가액을 취득원가와 동일하게 계상하고는 있지만, 순자산가액이 향후에도 더욱 하락할 여지가 있

12) 부산신항만(주)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부산신항만개발 민자유치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1997년 6월 30일자로 부산신항만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며, 1-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1-2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으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입장에서 감액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표 4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매도가능증권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부산신항만(주)	9.00	44,488	34,125	44,488

자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07년 감사보고서 재정리.

다음의 [표 41]은 부산신항만(주)의 최근 5년 동안 주요 손익현황이다.

부산신항만(주)의 매출 추이를 먼저 살펴보면 2006년에 와서야 비로소 발생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미약하여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할 경우 영업손실이 지속화되고 있다. 또한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항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이 2007년에는 22,686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당기순손실의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48,955백만원이 발생하였다.

[표 41] 부산신항만(주) 손익(2003~2007)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매출액	34,270	13,178	—	—	3,471
매출원가	58,236	42,366	—	—	3,456
매출총이익	△23,967	△29,188	—	—	15
판매비와관리비	5,118	6,715	10,292	6,265	4,993
영업이익	△29,085	△35,903	△10,292	△6,265	△4,978
이자비용	22,686	17,687	3,392	2,638	—
당기순이익	△48,955	△39,196	△6,998	△6,170	△4,935

자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다음으로 부산신항만(주)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신항만건설로 인하여 총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등으로 인하여 건설비용을 차입금에 의존함에 따라 금융성부채가 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채비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 2003년에는 24.71%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138.77%로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의존도도 2003년의 12.78%에서 2007년에는 56.09%로 크게 증가하였다.

부산신항만(주)의 200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신항만(주) 금융모델(2004년 1월 24일 작성) 대비 2006년 및 2007년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대주단으로부터 금융모델의 수정을 요청 받은바 있다. 2007년 말 현재 금융모델의 수정을 위한 대주단 사업실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융모델 수정 결과에 따라 현재의 상환일정대로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주단과 상환일정의 조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최초 예측한 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어 차입금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신항만(주)은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모두 취약하며, 감사보고서에서 기술하였듯이 현재의 영업현황 등으로는 차입금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할 수 없음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향후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2] 부산신항만(주) 재무구조 및 재무건전성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총 자 채	905,339	914,699	726,000	372,318	331,562
부 채	526,168	546,439	377,255	94,065	65,686
금 융 성 부 채	507,837	506,005	327,664	71,840	42,374
자 본	379,171	368,260	348,745	278,252	265,876
부 채 비 율	138.77%	148.38%	108.18%	33.81%	24.71%
차 입 금 의 존 도	56.09%	55.32%	45.13%	19.30%	12.78%
영업이익/이자비용(배)	△0.78	△0.49	△0.33	△0.42	—

자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2. 공기업의 자회사 관련 우발채무

공기업이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처가 영업손실 등으로 인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지만, 지급보증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액과 별도로 우발채무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액을 추정하여 재무제표의 주식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3]과 같다.

[표 43] 공기업 우발채무 현황

	자회사 관련 담보제공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	2007년 말 현재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백지어음 4매를 견질(담보)로 제공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지급보증이 확정부채화되어 39,809백만원을 20년 동안 14억원씩 분할상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칠곡엔바이로(주)의 584,472주가 특수관계자인 칠곡엔바이로(주)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	결손 누적된 동화열전(유)을 위하여 현지차입금에 대하여 하나은행·심양에 2000년 10월 7일 US\$8,454,000('07년도 기말환율 932.00원 기준 11,031백만원)을 지급보증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등의 감사보고서 재정리

가. 한국감정원 지급보증 확정부채화

한국감정원의 경우 자회사였던 한국부동산신탁(주)에 지급보증하였으나, 회사의 최종 부도로 인하여 지급보증액이 확정부채화 되어 41,232백만원을 20년간 매년 14억원씩 분할상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한국감정원은 2001년 말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지급보증채무 41,232백만원

전액이 확정채무화 되어 2002년 7월 30일에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대 보증채무의 분할상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분할상환약정 일 현재 증가된 2,123백만원을 포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총 채무 43,355백만원 중 3,546백만원은 감면하고 39,809백만원은 20년 동안 연 2회 매회 균등 분할상환한다.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투자액은 300억원으로 전액 감액손실 반영하였으며, 한국부동산신탁(주)의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보증이 확정부채화된 금액 39,869백만원을 포함한 69,80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백지어음 담보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말 현재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백지어음 4매를 견질(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투자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주)의 경우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하여 2007년 말 현재 결손금이 41,336백만원으로 자본의 일부가 잠식된 상황이다. 부채비율이 2007년 말 현재 1000%를 넘고 있는 등 재무구조도 매우 취약하다.

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주식 담보 제공

한국수자원공사의 칠곡엔바이로(주)의 보유주식은 584,472주이며,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2,922백만원을 투자하였다. 칠곡엔바이로(주)의 주된 사업은 왜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리 및 운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자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표 44] 한국수자원공사 칠곡엔바이로(주)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칠곡엔바이로(주)	49.00	2,922	3,366	3,366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주: 2007년 현황.

그런데 칠곡엔바이로(주)가 자사 주식 1,192,800주를 전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즉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칠곡엔바이로(주)의 584,472주가 특수관계자인 칠곡엔바이로(주)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칠곡바이로(주)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우발손실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 4년 동안(2007~2004)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칠곡엔바이로(주)의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2006년에야 비로소 (+)로 돌아섰으며, 2007년까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과 왜관일반지방산업단지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아직 공사비 충당이 되지 않아 유상증자, 국고보조금 및 차입금 등이 발생하여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4,111백만원 ~ 19,29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칠곡엔바이로(주)의 영업활동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주식이 안정적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때, 지속적인 건설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다음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2007년보다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의 특수관계자를 위한 담보제공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우발손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담보 제공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표 45] 칠곡엔바이로(주) 현금흐름표 요약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42	1,271	△1,807	△1,028
당기순이익	885	647	△169	△16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670	△18,977	△7,797	△17,885
현금유입	2,930	—	—	—
현금유출	△7,600	△18,977	△7,797	△17,88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25	17,565	9,231	19,299
현금유입	4,111	17,565	9,231	19,299
현금유출	△1,486	—	—	—
현금의증가	97	△141	△373	386
기초현금	189	330	703	317
기말현금	286	189	330	703

자료: 칠곡엔바이로(주) 감사보고서 재정리.

[표 46] 칠곡엔바이로(주)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

(단위: %)

	2007	2006	2005
매출액 증가율	42.83	176.90	5.38
매출원가율	55.22	60.22	98.63
영업이익률	38.33	32.19	△13.54

자료: 칠곡엔바이로(주) 감사보고서 재정리.

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동화열전(유) 담보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결손누적된 동화열전(유)를 위하여 현지차입금에 대하여 하나은행·심양에 2000년 10월 7일 US\$8,454,000(2007년도 기말환율 932.00원 기준 11,131백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있다.

동화열전(유)은 다음의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당기순손실이 지속화됨으로써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급 보증한 동화열전(유)의 취득원가 전액을 지분법손실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발손실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7] 동화열전(유)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당기순이익	△4,182	△3,970	△3,956	△5,096

3. 자회사 매출이 특수관계자 매출로 구성

가. DB정보통신

DB정보통신(주)은 고속도로 정보통신 시설관리,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한 신기술 개발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1996년 6월 1일에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2년 3월에 회사의 상호를 고속도로정보통신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05년 10월 19일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상호를 DB정보통신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DB정보통신(주)의 200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과 2006년 중 특수관계자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매출액은 56,502백만원(총매출의 55.7%), 48,681백만원(총매출의 63.6%)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DB정보통신(주)의 영업은 한국도로공사와의 영업 관계에 중요하게 의존하고 있다.

나.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은 공동주택의 관리 유지보수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주택의 임대업무의 수탁 등을 영업목적으로 1998년 9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말 현재 자본금은 7,000백만원이며, 대한주택공사가 100%소유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100%를 출자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약정 등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유지보수, 시설물관리 및 임대업무의 대행 등을 수행하고 약정에 따라 수탁수수료를 수수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의 총자산은 공단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현금등가물과 각종 대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다. 이는 유동부채에 계상된 예수금과 관리비선수금 등에 지불될 금액으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계상된 업무관련 금액들을 제외하면 총자산의 규모는 설립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주택관리공단의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최근 5년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매출을 통하여 발생한 영업이익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2005년과 2006년에는 마이너스(-)였으나, 2007년에 1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매출액의 변동이 없어 성장성이 낮고, 높은 매출원가율 등으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등 주택관리공단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8] 주택관리공단 주요 재무현황(2003~2007)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총자산	86,757	125,681	83,473	95,058	86,757
부채	76,915	114,705	75,556	84,861	76,915
자기자본	9,842	10,976	7,917	10,196	9,842
매출액	257,528	257,076	262,932	256,249	242,502
판매비와관리비	6,016	6,065	5,860	4,620	4,371
영업이익	△312	△3,888	△3,604	△99	△516
당기순이익	143	△2,450	△2,279	354	166

자료: 주택관리공단 감사보고서 재정리.

다음의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관리공단의 매출 중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를 넘어서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당초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관리사업부문이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되었으나, 최근까지 매출액의 대부분을 대한주택공사에 의존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의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사업부제를 유지할 때 보다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고정비 성격의 판매비와관리비이다. 주택관리공단의 연간 판매비와관리비는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위의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16억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향후 100%에 육박하는 매출이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경우 각각의 공공기관은 자회사 설립 시 발생 가능한 조직 유지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9] 주택관리공단 매출(2004~2007)

(단위: 백만원, %)

	2007	2006	2005	2004
총매출액(a)	257,528	257,076	262,932	256,249
대한주택공사 매출액(b)	255,142	255,385	262,503	255,117
비중(b/a)	99.07	99.34	99.84	99.56

다.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대한주택공사(32.4%), 한국도로공사(42.5%), 한국수자원공사(18.9%) 및 한국토지공사(6.2%)가 합하여 100%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4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0]과 같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1999년 4개의 감리공단이 통합한 이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감리업무가 전체 매출의 50%를 상회하였으나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2006년, 2007년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표 50]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특수관계자간 거래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한국도로공사	2,901	3,051	421	1,603	3,771	4,550
대한주택공사	6,567	5,392	3,697	2,112	1,682	4,074
한국수자원공사	1,139	957	1,088	833	585	1,386
한국토지공사	2,626	1,710	925	1,260	—	581
특수관계자매출 합계	13,233	11,109	6,132	5,808	6,038	10,591
총매출액	58,215	47,479	45,655	45,480	44,561	40,395
구성비율(%)	22.73	23.40	13.43	12.77	13.55	26.22

자료: 한국건설관리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높은 원가율에 기인하는데 2005년의 경우 100%를 넘는 원가율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51억원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6년 이후 원가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하여 원가율이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3억원 발생하였다.

[표 51] 한국건설관리공사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매출액	58,215	47,479	45,655	45,480	44,561	40,395
매출원가	51,686	44,244	48,072	45,434	42,794	37,992
매출원가율(%)	88.78	93.19	105.29	99.90	96.04	94.05
판매비와관리비	5,333	3,056	3,791	4,177	4,373	4,328
영업이익	1,197	178	△6,208	△4,131	△2,606	△1,926
당기순이익	2,353	1,160	△5,161	△3,242	△850	△1,535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통하여 자회사 신설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도록 하는 등 자회사 신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전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 측정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의 지분증권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평가보고서는 24개 공기업별로 지분증권에 투자한 이 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손실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공기업이 2007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매도가능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향후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과 우발손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24개 공기업의 총자산은 2003년 165조 6,626억원에서 2007년에는 267조 2,348억원으로 총 101조 5,7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61.13%에 이르고 있다.

반면, 지분증권을 포함하는 투자자산은 2003년에는 31조 8,423억원이며, 2007년에도 37조 2,944억원으로 5조 4,521억원 증가하여 17.12% 증가하는 데 총 자산증가율 61.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그 동안 공기업의 자회사 신설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하여 증가가 더딘 경향도 있지만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손실로 인하여 지분증권의 장부가액이 취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증가율을 높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다.

본 평가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매도가능증권을 세부적으로 증감을 분석한 결과, 24개 공기업의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은 2003년의 2,468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7,129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188.97% 증가하였다.

주된 증가는 한국가스공사의 외국 LNG 매입처 투자 2,286억원에 기인하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개발 관련 지분 투자 899억원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증감을 분석한 결과, 2007년 말 현재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주식의 장부가액은 29조 8,780억원으로 2003년의 24조 1,903억원에 비하여 5조 6,876억원 증가하였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증가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증가한 공기업 중 지분법적용주식 장부가액 증가를 이끈 주된 곳은 한국전력공사이다. 2003년 대비 2007년에 5조 1,034억원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증가액인 5조 6,876억원의 89.72%에 해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분증권과 관련하여 24개 공기업 중 13개 공기업이 지분투자과 후순위채권 인수 등으로 인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손실의 규모는 총 709,940백만원이다. 손실의 형태는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지분법손실, 후순위채권감액손실, 지급보증의 확정부채로 인한 손실 등으로 다양하다.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에서 81,677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지분법손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8개 공기업에서 112,878백만원이 발생하였다. 후순위채권 감액손실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475,576백만원이 발생하였다. 그 외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지급보증이 확정부채와 된 금액이 39,80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공기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및 지분법손실로 4,603백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너지로 인하여 지분법손실 6,882백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자산유동화를 실시하면서 인수한 후순위채권 131,300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도 이와 관련하여 2002년부터 인식한 감액손실금액이 344,276백만원이다.

대한주택보증(주)의 경우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출자 전환된 이후 추가적인 감액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33,898백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감정원은 자회사였던 한국부동산신탁(주)과 관련하여 총 69,809백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투자액 30,000백만원은 물론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지급보증액이 확정부채화된 금액 39,809백만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드림라인 투자액 중 32,139백만원을 감액손실로 인식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주)와 관련하여 지분법손실로 인식하고 있는 금액은 5,560백만원이며, 경인운하사업의 난항에 기인한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주)YTN에 20,00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19억원의 순자산가액과 200억원 투자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10년 동안 상각한 것과 과거 (주)YTN의 이익이 영업권상각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07년까지 발생한 지분법손실액이 6,958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전자화폐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여 (주)몬텍스코리아에 투자하였지만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가액이 거의 없어 투자액 200백만원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였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석유개발사업 지분 투자 및 자금운용 목적으로 설립 목적과 낮은 투자처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이 10,503백만원 발생하였다. 또한 인니NEM1 등 총 3개 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손실 2,586백만원 인식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동화열전(유), 안산도시개발(주), 한국CES(주) 등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지분법을 중단하였으며, 인천종합에너지(주)도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2007년까지 14,627백만원의 지분법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민자역사와 기타 자회사와 관련하여 취득원가가 장부가액을 하회하는 금액은 총 42,886백만원으로 민자역사가 15,046백만원, 기타 자회사가 27,840백만원 등이다.

한국토지공사는 후순위채권 인수로 인한 손실액 이외에도 부동산 PF 투자 등으로 인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입은 손실액이 3,713백만원이다.

공기업이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처가 영업손실 등으로 인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지만, 지급보증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액과 별도로 우발채무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우발채무가 실제 확정채무가 된 사례가 한국감정원이다.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신탁(주)를 300억원 투자하였으나,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20년 동안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투자액보다 많은 398억원이었다.

공기업이 자회사 등을 위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전히 우발채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은 인천국제공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백지어음 4매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철곡엔바이로(주)의 주식 전액을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결손누적으로 이미 지분법을 중단하고 있는 동화열전(유)을 위하여 2000년에 하나은행 심양에 US\$8,454,000(2007년 기말환율 932.00원 기준 11,031백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사례와 같이 우발채무가 확정부채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기업은 향후 자회사를 위한 담보제공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DB정보통신(주)의 200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과 2006년 중 특수관계자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매출액은 56,502백만원(총매출의 55.7%), 48,681백만원(총매출의 63.6%)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DB정보통신(주)의 영업은 한국도로공사와의 영업 관계에 중요하게 의존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당초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관리사업부문이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되었다. 그런데 주택관리공단의 매출 중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를 넘어서고 있는 등 최근까지 매출액의 대부분을 대한주택공사에 의존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의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당초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된 자회사의 경우 지속적인 모회사의 수주지원 등은 자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회사의 조직관리를 위한 비용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부제를 통한 흡수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자회사 관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향후에는 신설되는 법인의 매출이 대부분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경우 신설법인 설립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조직 유지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부록. 공기업별 지분증권 보유현황

1. 대한광업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07년 말 현재 매도가능증권 현황은 다음의 [부표 1]와 같으며, 주로 해외광업투자와 관련된 지분투자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07년 말 현재 1,074백만원의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있다.

[부표 1] 한국광물자원공사 매도가능증권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장부가액
단동삼강광산업유한공사	20.00	41
우즈코레스마이닝	50.00	546
호남중한광업유한공사	33.33	488
합 계		1,074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주: 2007년 매도가능증권 현황임.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부표 2]와 같으며, 대부분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 등에 대한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현지법인 등에 대한 투자를 장부가액 기준으로 보면,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267,086백만원으로 2006년의 109,577백만원보다 157,509백만원 많은 등 해외자원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부표 2]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연도별로 파악가능하나, 취득원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취득원가 정보를 관리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그 결과, 최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지분 획득 이후 얼마의 지분법손익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의 필수 정보이다. 이 정보가 누락됨으로써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필수정보의 누락은 심각한 재무정보의 왜곡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를 감사보고서 등에서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표 2] 한국광물자원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단위: 백만원)

	장부가액				
	2007	2006	2005	2004	2003
Kores Australia Pty Ltd.	95,661	47,223	31,044	26,680	19,336
(주)원진케이알	—	—	—	—	4,359
Philco Resources Limited	998	1,100	2,423	2,967	—
서안Maxun신재료유한공사	1,639	1,415	2,121	2,242	3,028
KORES Canada Corp.	17,552	10,872	7,742	—	—
장가항원진공업재료유한공사	3,612	1,968	3,062	—	—
장가항원진자원재생유한공사	4,829	4,257	4,593	—	—
장가항안휘성래용	410	383	—	—	—
암사딤사	—	21,674	—	—	—
암사	23,733	—	—	—	—
딤사	94,210	—	—	—	—
(주)NRC	12,069	11,802	12,042	—	—
KMC(주)	1,672	2,107	—	—	—
광양합금철(주)	10,702	6,777	—	—	—
합 계	267,086	109,578	63,027	31,889	26,723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2. 대한석탄공사

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대한석탄공사의 서평에너지(주)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 말에 2,000백만원을 투자하여 40만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서평에너지는 북한탄광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7년 11월에 설립된 회사이다.

[부표 3] 대한석탄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주)서평에너지	20.00	2,000	2,000

자료: 대한석탄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3. 대한주택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대한주택공사의 매도가능증권은 대부분 부동산PF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부동산 PF는 아산배방지구, 광명역세권, 충주기업도시이며, 일부 비축용임대주택사업 등에도 투자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의 2007년 말 현재 매도가능증권 현황은 다음의 [부표 4]와 같으며, 총 39,001백만원을 투자하여 장부가액은 39,001백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부표 4] 대한주택공사 매도가능증권

(단위: %, 백만원)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비고
(주)펜타포트개발	19.9	12,152	4,943	12,152	아산배방지구
(주)펜타포트	19.9	60	59	60	
(주)엠시에타개발	19.9	8,089	8,212	8,089	광명역세권
(주)엠시에타	19.9	1,130	55	1,130	
(주)충주기업도시	19.9	8,043	7,618	8,043	충주기업도시
(주)금곡하우징	19.9	3,307	3,307	3,307	비축용임대주택 사업
(주)호매실하우징	19.9	2,549	2,549	2,549	
(주)파주하우징	19.9	3,671	3,671	3,671	
합 계		39,001	30,414	39,001	

자료: 대한주택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주: 대한주택공사의 2007년 말 현황임.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편 대한주택공사가 20%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주택관리공단 2개이며, 11,0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19,60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아래의 [부표 5]에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에 2005년에 2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대한주택공사(32.4%), 한국도로공사(42.5%), 한국수자원공사(18.9%) 및 한국토지공사(6.2%)가 합하여 100%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1999년 4개의 관리공단이 통합한 이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감리업무가 전체 매출의 50%를 상회하였으나,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2006년, 2007년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당초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관리사업부문이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되었으나, 최근까지 매출액의 대부분을 대한주택공사에 의존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의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매출의 대부분을 대한주택공사의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된 자회사의 경우 지속적인 모회사의 수주지원 등은 자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회사의 조직관리를 위한 비용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사업부제를 통한 흡수 등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자회사 관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부표 5] 대한주택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2007	2006	취득원가	2005	2004	2003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한국건설 관리공사	32.4	4,000	11,992	11,605	4,000	11,117	10,130	10,990
주택관리 공단	100.0	7,000	7,613	7,377	5,000	7,303	10,218	9,840
합 계		11,000	19,605	18,982	9,000	18,420	20,348	20,830

자료: 대한주택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4. 대한주택보증(주)

가. 매도가능증권

대한주택보증(주)의 매도가능증권은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2007년 말 현재 LIG건설을 포함하여 총 5개 회사에 33,137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충남방적(주)과 LIG건설(주) 등 장부가액이 취득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은 21,042백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손실액이 아니며, IMF 사태로 인하여 이미 2003년 이전에 감액손실 처리되었다.

[부표 6] 대한주택보증(주)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한국자산신탁(주)	668	1,628	1,628
(주)뉴코아	20	20	20
LIG건설(주)	32,142	11,109	11,109
충남방직(주)	17	8	8
국제종합토건(주)	290	290	290
합 계	33,137	13,055	13,055

자료: 대한주택보증(주)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주: 2007년 말 현황임.

5. 부산항만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부산항만공사가 2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양산ICD와 PNCT, 부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등 3개 회사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들 3개 회사에 총 2,924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도 2,924백만원이다.

[부표 7] 부산항만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양산ICD	11.11	875	875
PNCT	10.00	1,744	1,744
부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9.00	5	5
합 계		2,924	2,924

자료: 부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주: 2007년 매도가능증권 현황임.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부산항만공사가 20%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사는 (주)부산항보안공사와 부산북항재개발(주) 등 2개 회사이며, 각각 500백만원, 1,000백만원 등 총 1,50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부표 8] 부산항만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주)부산항보안공사	100	500	500
부산북항재개발(주)	100	1,000	1,000
합 계		1,500	1,500

자료: 부산항만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6. 인천국제공항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도가능증권 현황은 다음의 [부표 9]와 같으며, 스카이72(주)에 3,800백만원, (주)인천시민프로축구단에 100백만원 등 총 3,90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3,800백만원이다.

스카이72(주)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많으므로 투자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주)인천시민프로축구단은 10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영("0")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투자로 인한 손실 100백만원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스카이72(주)는 골프장 사업권 부지 중 공유수면(120억 가량)을 개발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기부채납한 후, 장기 임대하고 있다.

[부표 9] 인천국제공항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투자액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스카이72(주)	10.00	3,800	3,896	3,800
(주)인천시민프로축구단	0.60	100	—	—
합 계		3,900	3,896	3,800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07년 말 현재 매도가능증권 현황임.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사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과 인천공항에너지(주) 등 2개 회사이며,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에 14,506백만원, 인천공항에너지(주)에 18,014백만원 등 총 32,52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두 회사는 모두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부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회사의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을 비교해 보면,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의 경우 취득가액보다 2007년 장부가액이 6,744백만원 많고, 인천공항에너지(주)의 경우 취득원가보다 2007년 장부가액이 13,794백만원 적다.

[부표 10]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2007	2006	2005	2004	2003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34.0	14,506	21,250	18,280	15,845	14,120	12,465
인천공항에너지(주)	34.0	18,014	4,220	4,841	8,924	9,001	9,204
합 계		32,520	25,469	23,122	24,769	23,121	21,669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사 중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은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7년 4월 30일에 설립되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의 건설을 완료한 후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 2001년 3월 29일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 약 11년 4.5개월간의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은 시설물 완료시까지 고정비 성격의 판매비와관리비 및 이자비용 발생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01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이후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인천공항에너지(주)는 2000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높은 원가와 및 이자비용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자산-부채=자본)이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인천공항에너지(주)와 관련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하회하고 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과 인천공항에너지(주)의 당기순이익을 비교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확대되고 있으며, 2003년 대비 2007년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408.26% 증가하였다. 반면 인천공항에너지(주)는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자본은 12,657백만원으로 자본금 52,982백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일부 자본잠식 상태이다.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과 인천공항에너지(주)가 각각 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당기순이익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의 경우 적정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에너지의 경우 이자비용을 포함한 원가를 만회할 정도의 매출이 확대되지 않음에 기인한다.

[부표 11]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법 적용회사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8,737	7,161	5,074	4,868	1,719
인천공항에너지(주)	△1,291	△6,863	△4,857	△374	△6,590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7. 인천항만공사

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인천항만공사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2008년 1월에 설립된 인천항만보안(주)이 유일하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회사에 총 50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415백만원이다. 인천항만보안(주)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로부터 분리되어 인천항 경비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부표 12] 인천항만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을	취득원가	장부가액
인천항만보안(주)	100	500	415

자료: 인천항만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8. 한국가스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가스공사가 2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미얀마A-1광구 권소시엄을 비롯하여 15개 회사 등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들 회사에 총

231,951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도 231,951백만원으로 취득원가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투자주식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되어 순자산가액이 현저히 하락하지 않은 경우 취득원가로 장부가액을 적용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한국가스공사의 매도가능증권 중 미얀마광구권소사업(A-1, A-3) 투자액 37,853백만원, YEMEN LNG Co.투자액 187,746백만원은 전체 매도가능증권 투자액 231,952백만원의 97.26%를 차지하고 있다.

[부표 13] 한국가스공사 매도가능증권(2007)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미얀마A-1광구 권소사업	10.00	23,067	23,067	23,067
미얀마A-3광구 권소사업	10.00	14,786	14,786	14,786
한국가스냉열(주)	6.00	77	77	77
K&P 에너지절약전문투자	5.00	160	160	160
제3호에너지절약전문투자조합	5.00	600	600	600
코렐테크놀로지(주)	13.40	60	60	60
(주)크리오텍	45.00	—	—	—
YEMEN LNG Co.	6.00	187,746	187,746	187,746
K.K.Korea Kamchatka Co.Ltd.	10.00	1,345	1,345	1,345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주)	28.00	711	711	711
GS퓨어셀(주)	33.60	3,400	3,400	3,400
KG(Timor Sea 06-102) Ltd.	100.00	—	—	—
KG-Timor Leste Ltd.	100.00	—	—	—
KG Mozambique Ltd.	100.00	—	—	—
KG Krueng Mane Ltd.	100.00	—	—	—
합 계		231,952	231,952	231,952

자료: 한국가스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국가스공사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주)한국가스기술공사를 비롯하여 4개 회사 등으로 총 87,666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106,410백만원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자회사 중 (주)한국가스기술공사의 순자산가액이 높아 이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장부가액이 높다. 그러나 (주)한국가스기술공사의 매출액 대부분이 모회사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이 높은 것이 한국가스공사의 궁극적인 이익 측면에서 볼 때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Korea Ras Laffan LNG Ltd.와 Hyundai Yemen LNG Company는 장부가액이 투자액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표 14] 한국가스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00.00	11,450	42,565	35,073
Korea Ras Laffan LNG Ltd.	60.00	18,971	15,623	15,623
Korea LNG Ltd.	24.00	3	2,595	2,595
Hyundai Yemen LNG Company	49.00	57,243	△64	53,118
합 계		87,666	60,719	106,410

자료: 한국가스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9. 한국공항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공항공사의 매도가능증권 현황은 다음의 [부표 15]와 같다. 한국공항공사는 다음의 [부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항서비스(주)에 9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투자액과 일치한다.

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공항서비스(주)는 인천공항 주차장 관리운영 및 주차대행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로, 1995년 한국공항공단의 자회사로 공항주차관리(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1999년 민영화되었다. 2000년에 기존에 사용하던 공항주차관리(주)의 명칭을 공항서비스(주)로 변경하였다. 2001년에는 김포국제공항, 2004년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주차대행서비스사업을 개시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주된 사업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낮은 주차대행서비스를 수행하는 공항서비스(주)에 대한 투자 등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부표 15] 한국공항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공항서비스(주)	30.00	90	90	90

자료: 한국공항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10. 한국관광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관광공사의 매도가능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2007년 말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발행주식 17.42%를 소유하고 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은 시장성이 없고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다.

[부표 16] 한국관광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17.42	29,026	25,243	29,026

자료: 한국관광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그러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장부가액은 다음 [부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취득원가와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은 △3,78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부표 17]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순자산가액 현황

(단위: 백만원)

	취득원가(a)	순자산가액(b)	차액(b-a)
2007년	29,026	25,243	△3,783
2006년	29,026	26,088	△2,937
2005년	29,026	26,593	△2,432
2004년	29,026	27,691	△1,335

자료: 한국관광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한국관광공사가 1997년에 290억원을 들여 투자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제주도 중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용역업과 국제회의시설 운영, 쇼핑센터, 면세점, 기타 관광산업 및 컨벤션센터 부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음의 [부표 18]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손익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3년에 개관하여 목적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07년까지 매출액의 증가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상회하고 고정적으로 10억원 이상 발생하는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은 물론 당기순이익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부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매출원가를 상쇄할만한 매출액 규모가 지금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아 매도가능증권의 손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표 18]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손익(2002~2007)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매출액	3,518	3,005	2,149	2,315	972	—
매출원가	7,650	7,860	7,465	7,226	—	—
판매비와관리비	1,151	1,031	1,069	1,313	7,833	1,520
영업이익	△5,284	△5,886	△6,385	△6,223	△6,861	△1,520
당기순이익	△4,856	△2,879	△6,528	△6,701	△7,116	△585

자료: 한국관광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국관광공사가 2007년 말 현재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사는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2개 회사이며, 2007년 말 현재 취득가액은 52,064백만원이며, 장부가액은 150,822백만원이다. 두 회사 모두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인한 순자산가액 증가로 인하여 이에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장부가액이 취득원가에 비하여 98,758백만원 증가하였다.

[부표 19] 한국관광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a)	순자산가액	장부가액(b)	차액(b-a)
경북관광개발공사	100.00	22,064	82,353	82,149	60,085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00.00	30,000	68,673	68,673	38,673
합 계		52,064	151,026	150,822	98,758

자료: 한국관광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주: 2007년 말 현황임.

11. 한국도로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도로공사의 매도가능증권 현황은 다음의 [부표 20]과 같으며, 2007년 말 현재 4개 회사에 대하여 총 87,71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드림라인(주)과 DB정보통신(주)은 2003년 이후 투자액이 각각 44,028백만원, 1,635백만원으로 일정하다. 그러나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대한 투자액은 2003년에는 1,720백만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액을 확대하여 2007년에는 32,380백만원으로 30,660백만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며, 행담도개발(주)에 대한 2003년 투자액은 1,000백만원이나 2007년에는 9,667백만원으로 8,667백만원을 추가 투자하였다.

서울-춘천고속도로(주)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서울-춘천간고속도로의 건설, 관리,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2004년 3월 19일자로 건설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거 2004년 8월 12일에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공사를 개시하였으며, 예정 준공일은 2009년 8월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시설투자과 이자비용 등으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지속화되고 있어 순자산가액이 투자액을 하회하고 있다.

DB정보통신(주)은 고속도로 정보통신 시설관리,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한 신기술 개발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DB정보통신(주)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매출액은 2007년과 2006년 56,502백만원(총매출의 55.7%), 48,681백만원(총매출의 63.6%)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DB정보통신(주)의 영업은 한국도로공사와의 영업 관계에 중요하게 의존하고 있다.

[부표 20] 한국도로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투자액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드림라인(주)	5.53	44,028	9,768	5,991
서울-춘천고속도로	10.70	32,380	31,521	32,380
DB정보통신(주)	19.00	1,635	주 1	1,635
행담도개발(주)	10.00	9,667	8,948	9,667
합 계		87,710	50,237	49,673

자료: 한국도로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주: 1. DB정보통신(주)의 결산재무제표 미입수로 인하여 순자산가액 미산정함.

2. 2007년 말 현재 매도가능증권 잔액임.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국도로공사가 2007년 말 현재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사는 다음의 [부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회사에 이르고 있으며, 38,059백만원을 출자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관리공단에 대한 지분 일부를 계룡건설에 매각함으로써 2007년 말 현재 3069백만원의 투자액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4개 공공기관이 합하여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4,00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문업체인 하이플러스카드(주)에 6,00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참고로 지분법과 관련성은 낮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춘천고속도로(주)와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등 2곳의 민자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사업자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총 57,370백만원이다.

[부표 21] 한국도로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2007)

(단위: 백만원, %)

	지분율	투자액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주)고속도로관리공단	27.60	3,069	27,007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42.50	4,000	16,267	12,877
부산울산고속도로(주)	51.00	24,990	24,327	24,452
하이플러스카드(주)	100.00	6,000	5,692	5,692
합 계		38,059	73,293	43,021

자료: 한국도로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12. 한국마사회

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국마사회는 (주)YTN에 9.5%를 투자하고 있지만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기관에 참여하고 있어, 이를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

[부표 22] 한국마사회 지분법적용투자주식(2003~2007)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2007	9.5	20,000	12,664	14,470
2006	9.5	20,000	11,360	14,973
2005	9.5	20,000	11,192	16,612
2004	9.5	20,000	10,840	18,081
2003	9.5	20,000	5,366	19,759

자료: 한국마사회 감사보고서 재정리.

13. 한국석유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석유공사가 2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2007년 말 현재 한국마이크로닉(주), (주)대한송유관공사, PetroOnado S.A 등 3개 회사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들 3개 회사에 총 31,827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28,548백만원이다. 이 중 (주)대한송유관공사만 취득원가보다 장부가액이 상회하고 있으며, 한국마이크로닉스(주)와 PetroOnado S.A는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하회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닉(주)와 PetroOnado S.A은 순자산가액의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6년 이전에 취득원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액만큼 감액손실로 처리한 바 있다. PetroOnado S.A 투자는 베네수엘라의 석유광구에 대한 합작회사를 통한 간접적 지분 참여이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강제적 지분 축소로 인한 순자산가액 하락분을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하였다.

[부표 23] 한국석유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a)	순자산가액	장부가액(b)	차액(b-a)
한국마이크로닉(주)	16.70	775	379	379	△396
(주)대한송유관공사	3.69	8,298	9,935	9,935	1,637
PetroOnado S.A	5.64	22,755	18,234	18,234	△4,521
합 계		31,828	28,548	28,548	

자료: 한국석유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주: 2007년 말 현황임.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국석유공사가 20%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2007년 말 현재 KOL에 대한 투자액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 투자액은 1,100백만원이고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1,591백만원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과거에는 KOL 등 7개 회사에 이르렀으나, 2007년 말 현재 KOL이 유일하다.

[부표 24] 한국석유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2007)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a)	순자산가액	장부가액(b)	차액(b-a)
KOL	30.00	1,100	1,591	1,591	491

자료: 한국석유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14. 한국수자원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수자원공사가 2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 푸른장량 등 2개 회사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들 2개 회사에 총 4,08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도 4,080백만원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최근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시현함에 따라 이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를 상회하고 있다.

[부표 25] 한국수자원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한국건설관리공사	18.90	4,000	7,254	4,000
푸른장량	5.00	80	80	80
합 계		4,080	7,334	4,08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편, 한국수자원공사가 20%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는 경인운하(주)와 칠곡엔바이로(주) 등 2개 회사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들 2개 회사에 총 15,701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10,584백만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00억원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을 파악하기 위하여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파악한 결과 칠곡엔바이로(주)의 경우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상회하고 있으나, 경인운하(주)의 경우 취득원가인 12,778백만원에 비하여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7,218백만원에 불과하다.

[부표 26] 한국수자원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경인운하(주)	19.41	12,778	7,218	7,218
칠곡엔바이로(주)	49.00	2,922	3,366	3,366
합 계		15,701	10,584	10,584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15. 한국전력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전력공사의 2007년 말 현재 매도가능증권 잔액은 80,652백만원이며, 15개 회사에 대한 81,510백만원을 투자액과 비교하여 큰 폭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주로 한국전력공사의 매도가능증권이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됨에 기인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으므로 순자산가액의 현저한 하락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를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부표 27] 한국전력공사 매도가능증권(2007)

(단위: 백만원)

	지분율	취득가액	장부가액
한국전력거래소	50.00	63,920	63,920
제3호에너지절약전문투자조합	48.00	2,400	2,400
K&C-경남청년일자리창출투자조합	10.00	2,000	2,000
여성벤처투자조합	10.00	1,000	1,000
포스텍전력전기대중소기업상생협력펀드	5.60	1,600	1,600
한화전력벤처펀드	6.40	1,600	1,600
환영철강공업(주)	0.10	1,091	96
(주)광림	0.60	71	208
대아리드선	2.20	16	16
KNOC Nigerian East Oil Co., Ltd.	15.00	12	12
KNOC Nigerian West Oil Co., Ltd.	15.00	12	12
Dolphin Property Limited.	15.00	12	12
KEPCO Australia Pty Ltd.	100.00	6,877	6,877
KEPCO Canada Energy Ltd.	12.50	823	823
KEPCO Nigeria Ltd.	100.00	76	76
합 계		81,510	80,652

자료: 한국전력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국전력공사가 20%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는 6개 발전회사를 포함하여 24곳으로 총 18조 5,502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말 현재 28조 8,757억원의 장부가액으로 유지하고 있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할 때,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면서 취득한 금액이 17조 4,856억원으로 전체 취득가액의 94.2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자회사의 대부분이 6개 발전회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10조 3,207억원 많으며, 취득원가 대비 55.66%

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자회사의 매출이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안정적인 매출을 통하여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기인한다.

[부표 28] 한국전력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2007)

(단위: 백만원, %)

	지분을	취득가액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한국수력원자력(주)	100.0	9,364,799	13,645,050	13,650,396
한국남동발전(주)	100.0	1,232,004	2,089,672	2,096,559
한국중부발전(주)	100.0	1,325,891	2,572,152	2,574,532
한국서부발전(주)	100.0	1,442,638	2,426,218	2,429,546
한국남부발전(주)	100.0	1,797,378	2,555,950	2,559,675
한국동서발전(주)	100.0	2,322,905	2,585,443	2,590,231
한국전력기술(주)	97.9	4,991	218,483	26,895
한전KPS	80.0	4,800	298,499	286,767
한전원자력연료(주)	96.4	89,757	202,665	179,435
한전KDN(주)	100.0	64,000	193,904	169,185
한전산업개발(주)	49.0	7,987	29,379	29,379
(주)LG파워콤	43.1	323,470	393,043	393,043
한국가스공사	24.5	94,500	938,136	938,136
한국지역난방공사	26.1	5,660	187,502	187,502
KEPCO International Hong Kong Ltd.	100.0	15,102	261,455	261,455
KEPCO International Philippines Inc.	100.0	104,832	162,243	162,243
KEPCO China International Ltd.	100.0	18,852	9,317	9,317
KEPCO Gansu International Ltd.	100.0	7,168	7,552	7,552
KEPCO Philippines Holdings Inc.	100.0	202	5,104	5,104
KEPCO Asia International Ltd.	58.0	1,122	1,079	1,079
KEPCO Lebanon SARL	100.0	292	1,547	1,547
KEPCO Neimenggu International Ltd.	100.0	60,950	64,160	64,160
KEPCO Shanxi International Ltd.	100.0	253,039	244,392	244,392
KEPCO Energy Resource Nigeria Limited.	30.0	7,824	7,625	7,625
합 계		18,550,163	29,100,570	28,875,755

자료: 한국전력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16. 한국조폐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조폐공사의 2007년 말 현재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은 81.4백만원이며, 서울스마트카드(주)와 (주)몬텍스코리아 투자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몬텍스코리아는 2003년에 투자액 200백만원을 감액손실로 처리함으로써 장부가액이 영(“0”)으로 처리하였다.

[부표 29] 한국조폐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2007년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서울스마트카드(주)	81	-	81
(주)몬텍스코리아	200	-	-
합 계	281	-	81

자료: 한국조폐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17. 한국지역난방공사

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7년 말 현재 지분율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은 다음의 [부표 30]과 같으며, 총 7개 회사에 총 80,220백만원을 투자하여 장부가액은 65,819백만원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14,401백만원만큼 하회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사 중 안산도시개발(주), 동화열전(유)의 경우 결손금 등의 누적으로, 한국지역난방기술(주)의 경우 내부거래미

실현손익의 제거로 인하여 투자주식이 영("0") 이하가 되어 지분법을 중지하고 있다. 3개 회사 외에도 인천종합에너지(주)가 최근 3년(2004~2007) 연속 당기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지분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회사 7개 중 6개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이 최초 투자액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산도시개발(주)의 경우처럼 초기투자비 회수기간이 긴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지분법손실 규모는 향후 사업 성숙기 진입 시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부표 30]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단위: 백만원,)

	취득가액(a)	장부가액(b)	차액(b-a)
안산도시개발(주)	2,739	—	△2,739
동화열전(유)	5,430	—	△5,430
한국지역난방기술(주)	400	—	△400
인천종합에너지(주)	37,833	32,569	△5,264
한국CES(주)	618	4	△614
(주)휴세스	24,500	24,726	226
수완에너지(주)	8,700	8,520	△180
합 계	80,220	65,819	△14,401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주: 2007년 말 현황임.

18. 한국철도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말 현재 다음의 [부표 31]와 같이 3개 회사에 총 8,722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피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데, 2007년 말 현재 가액이 12,086백만원이므로 피투자회사가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가능하다.

[부표 31] 한국철도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수원애경역사	11.16	6,140	8,360	6,140
한국관광공사	0.87	2,448	3,411	2,448
한국철도종합서비스	11.20	134	314	134
합 계		8,722	12,086	8,722

자료: 한국철도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

주: 2007년 말 현황.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국철도공사는 (구)철도청으로부터 2005년 공사로 출범하면서 주식을 현물출자받아, 2007년 말 현재 총 31개 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174,452백만원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살펴보면, 크게 민자역사 출자분과 기존 철도공사의 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롯데역사(주), 부천역사(주) 등 17개 민자역사에 총 107,756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코레일 개발(주), 코레일 로지스(주) 등 기존의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던 14개 회사에 66,695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민자역사추진사업은 (구)철도청 당시 민간부분과 정부부분의 민관합작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며, 한국철도공사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민자역사 17개 중 현재 건설완료되어 영업을 개시하여 운영중인 민자역사는 롯데역사(주), 부천역사(주) 등 9개역사이며, 아직 건설 중인 민자역사는 신세계의정부역사(주), 노량진역사, 비트플렉스(등) 8개 회사이다.

[부표 32] 한국철도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지분율	취득가액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롯데역사(주)	25.00	66,583	126,489	114,956
부천역사(주)	25.00	6,833	7,242	8,088
부평역사(주)	25.00	682	305	327
창동역사(주)	31.25	1,500	△8,703	—
신촌역사(주)	29.41	1,500	△1,709	—
안양역사(주)	25.00	671	1,330	1,265
동인천쇼핑센터(주)	20.00	750	△2,046	—
(주)비트플렉스	28.74	4,000	△1,186	—
(주)산본역쇼핑센터	21.03	652	△4,381	—
한화역사(서울역)(주)	30.07	7,088	10,973	9,612
한화청량리역사(주)	24.55	5,412	5,402	5,437
(주)현대아이파크몰	47.40	5,500	△26,044	—
대구북합화물터미널(주)	25.00	23,841	5,490	5,490
(주)경인아이시디	25.00	1,765	1,788	1,796
노량진역사(주)	55.67	500	△841	—
코레일개발(주)	79.67	2,838	1,958	2,583
코레일로지스(주)	49.45	3,339	2,658	3,148
브이캐시(주)	91.47	7,995	—	—
코레일네트웍스(주)	25.54	15,886	8,885	14,616
평택역사(주)	100.00	4,085	3,240	3,796
코레일유통(주)	29.90	3,142	7,985	4,860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25.00	1,495	1,294	—
성북역사(주)	25.00	500	247	500
신세계의정부역사(주)	25.00	1,000	6	1,000
천안역사(주)	25.00	500	994	500
코레일에드컴(주)	98.13	917	2,898	917
코레일트랙(주)	100.00	1,617	5,266	1,617
코레일투어서비스(주)	51.00	1,789	1,622	1,789
코레일전기(주)	100.00	500	1,270	500
코레일엔지니어링(주)	60.00	676	576	676
용산역세권개발(주)	29.90	897	883	897
합 계		174,452	153,892	184,368

자료: 한국철도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1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부산신항만(주)에 2007년 말 현재 44,488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부산신항만공사¹³⁾의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하고 있어 손익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부산신항만(주)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였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07년 말 현재 부산신항만(주)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와 동일하게 계상하고는 있지만, 순자산가액이 향후에도 더욱 하락할 여지가 있으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입장에서 감액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부표 3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매도가능증권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부산신항만(주)	9.00	44,488	34,125	44,488

자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07년 감사보고서 재정리.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20%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사는 다음의 [부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한국항만기술단, (주)KLNET, 성광중합물류(주), 에스케이씨티에이(주) 등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이들 회사에 2007년까지 투자한 금액은 14,926백만원이며, 2007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25,385백만원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은 (주)KLNET

13) 부산신항만(주)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부산신항만개발 민자유치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1997년 6월 30일자로 부산신항만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며, 1-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1-2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상회하고 있어 투자손실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부표 3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주)한국항만기술단	49.0	980	5,268	5,268
(주)KLNET	24.7	5,960	5,616	5,616
성광종합물류(주)	30.0	1,800	1,980	1,980
에스케이씨티에이(주)	33.7	6,186	12,521	12,521
합 계		14,926	25,385	25,385

자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07년 감사보고서 재정리.

20. 한국토지공사

가. 매도가능증권

한국토지공사의 매도가능증권 현황은 다음의 [부표 35]와 같으며, 2007년 말 현재 119,861백만원을 투자하여 116,153백만원의 잔액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의 매도가능증권 투자의 특징은 (주)그린시티 등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07년 말까지 자산관리회사까지 포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는 14개이고, 이에 대한 투자액은 86,57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부표 35] 한국토지공사 매도가능증권 현황

(단위: 백만원)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한국건설관리공사	4,000	4,000	4,000
대한주택보증(주)	26,775	26,775	26,775
새롬성원(주)	2,514	1	1
(주)그린시티	4,340	4,140	4,140
(주)쥬네브	6,260	6,260	6,260
메타폴리스(주)	10,507	10,507	10,507
(주)스마트시티	9,413	8,418	8,418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	60	60	60
모닝브릿지(주)	2,337	2,337	2,337
모닝브릿지자산관리(주)	60	60	60
(주)레이크파크	2,470	2,470	2,470
(주)레이크파크자산관리	57	57	57
(주)스페이스플러스별내1	1,373	1,373	1,373
(주)스페이스플러스별내2	975	975	975
(주)스페이스플러스삼송	3,025	3,025	3,025
(주)알파돔시티	45,600	45,600	45,600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	95	95	95
합 계	119,861	116,153	116,153

자료: 한국토지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한국토지공사가 20%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부표 36]와 같이 한국토지신탁(주)와 한우리(주) 등 2개 회사에 103,0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말 현재 103,688백만원의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지분법적용회사에 대한 장부가액이 투자액보다 낮지 않아 투자로 인한 손실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

[부표 36] 한국토지공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한국토지신탁	39.61	100,000	100,393	100,393
한누리(주)	47.14	3,300	3,295	3,295
합 계		103,300	103,688	103,688

자료: 한국토지공사 감사보고서 재정리.

참고문헌

1. 한국광물자원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2. 대한석탄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3. 대한주택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5. 부산항만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6. 인천국제공항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7. 인천항만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8. 한국감정원,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9. 한국관광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10. 한국공항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11. 한국도로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12. 한국석유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13. 한국수자원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14. 한국전력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15. 한국조폐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16. 한국지역난방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17. 한국철도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1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19. 한국토지공사, 2003~2007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003~2007.
19. 삼일회계법인,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해설, 2007.

연구 및 참여진

분 야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국번: 788)
기획·조정	산업사업평가팀장	최미희	3781
집 필	사업평가관	이은경	4675
편 집	사무보조원	현소라	3781
자료정리	연구보조원	정현수	4675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 목록

2009

	제 목	집 필 진	발간일
1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평가	이환성	2.16
2	난방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및 사업평가	허가형	3.09

사업평가 09-03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 - 공기업을 중심으로

발 간 일 2009년 3월 31일
편 집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발 행 인 신해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4675
인 쇄 처 성문인쇄 TEL 02·2272·7553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TEL 02·788·467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188-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